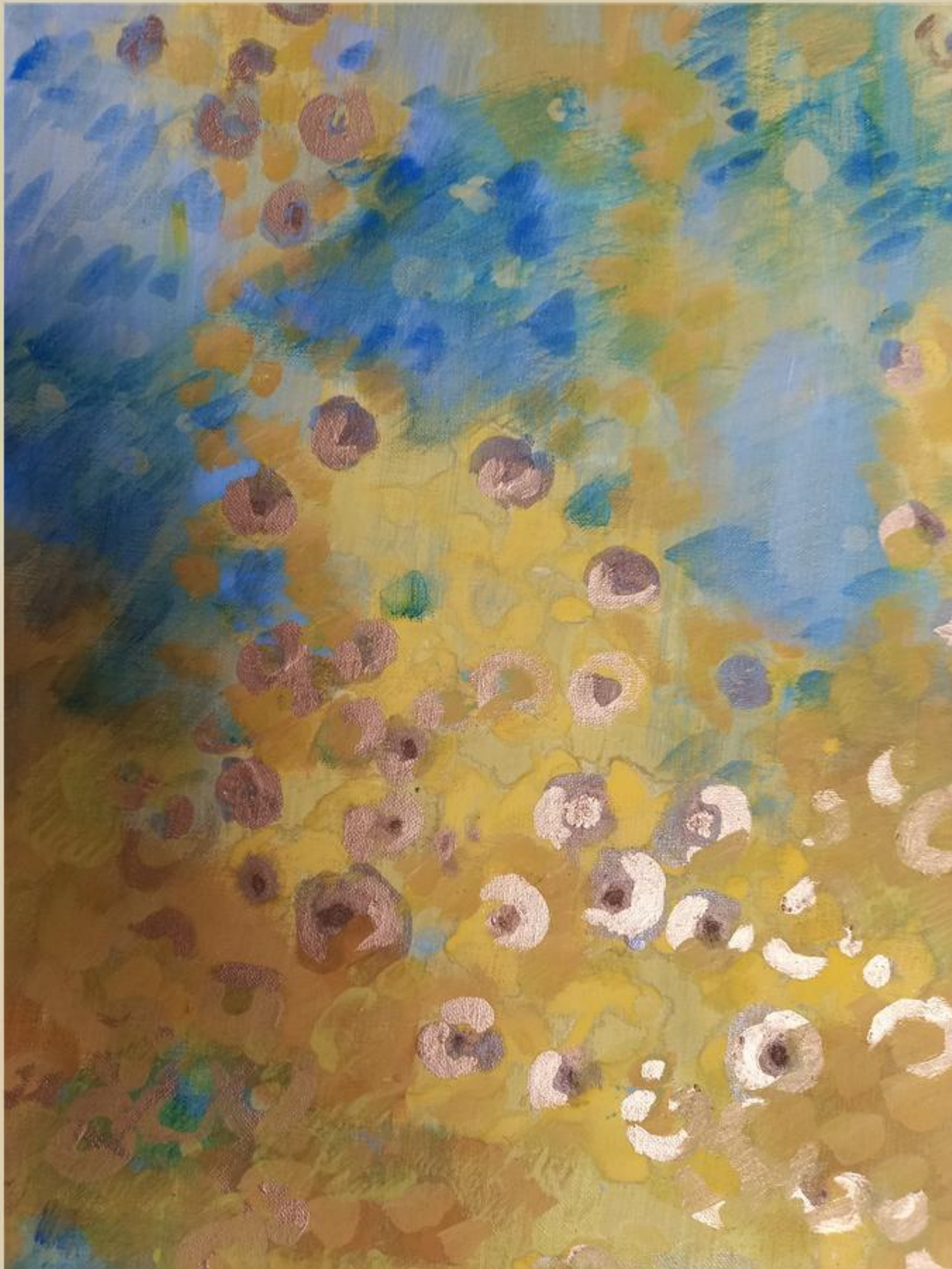


2021 **10** Vol. 376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가을의 노래



가을은
뜨거운 열정 멈추고
땀 흘리며 가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간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여름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바람 오가는 들과 산
가을빛이 내려오는 골짜기
빈손 빈 마음이 좋다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가을의 노래
- 03 차례
- 04 강좌/ 김영문(브루노) 신부
재속회원의 미덕
- 07 웅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마귀와 성수
- 08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57)
- 12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0)
- 16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8)
- 21 선교/ 김석영(요셉) 수사
<사도들 중의 사도>가 되고 싶었던
성녀 소화 데레사의 선교 영성
- 24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김석영(요셉) 수사
내 눈들 그대 뵈과저
- 26 성소/ 성소 위원회
“꼭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이 있나요?”
- 28 공동체 이야기/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마산 공동체 이야기
- 32 순례기/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5)
- 36 회원의 글/ 박계용(도미니카)
잃어버린 화관
- 39 회원의 글/ 이정미(헬레나)
눈빛 깊어지는...
- 40 회원의 글/ 김순상(베로니카)
以患爲利(이환우리) 위기를 기회로
- 42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박지현(요셉피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 44 회원의 글/ 반숙자(벨라데타)
통증의 교감
- 46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1)
2021년 12월 영적나눔
- 48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수상 및
학술상 상임 심사위원 선정
- 50 비둘기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 작은 꽃(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6호 (2021 10.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강좌 *

재속회원의 미덕(美德)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함께 나눔과 친교를 맺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살며, 가르멜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드러내 전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본다.

몸의 열망과 지향

몸은 어떤 행동을 드러낸다. 신체언어라는 말이 있다. 몸이 말을 한다고 한다. 몸에는 눈짓, 얼굴 표정, 고갯짓, 옷차림, 걸음걸이 등이 나타난다. 몸은 어떤 기분인지를 드러낸다. 몸은 감정을 표현한다. 우리의 몸은 내적 집중을 보여준다.

몸이 부정적 표현을 한다. 몸은 불만족과 불편함과 짜증을 표현한다. 몸은 걱정과 상처받아서 화가 났음을 드러낸다. 몸은 질투나 실망을 드러내고 싫증을 드러낸다. 몸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다. 몸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싫고 불쾌하다고 표현한다. 몸이 지나치게 무엇에 애착하고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몸이 긍정적 표현을 한다. 몸이 만족감과 평안함을 드러낸다. 몸은 기쁨을 드러내고 웃고 혹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현한다. 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좋다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보여주며 쾌활함을 드러낸다. 몸은 관계나 교류, 친교에 있어서 적극적

이고 개방적이고 열성을 보여준다. 몸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내어준다. 몸은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열정을 보이고, 발전과 성장을 추구한다. 몸은 인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또 우리는 몸으로 하느님 앞에서 미사하고 전례를 거행한다. 몸(동작)으로 성무일도를 하고 기도를 한다. 전례나 미사나 기도에서 몸이 공손하고 절제를 하며 하느님께 존경과 공경을 드린다. 또 주님 말씀에 몸으로 응답하고 반응한다. 몸의 동작들이 공동체와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 한목소리를 내고, 또 모두 침묵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몸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스스로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청한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시편 25,4)

인격적이고 품위있는 말

말은 인성을 드러낸다. 말은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드러낸다.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억하는 것, 숙고하는 것,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성찰해 본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 그런 말은 혼란을 가져오고 용기를 꺾는다. 부

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은,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킨다. 말은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고, 분열시킨다. 잘못을 꾸짖으며 인정하라고 다그치거나 따지는 말이 있다. 미움을 드러내는 말과 양갈음하거나 헐박하는 말이 있다. 놀리는 말이 있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이 있다. 남의 말을 많이 하고 자주 남의 결점을 말하기도 한다. 자기주장과 의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끼어드는 말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충고와 교정에 분노하며 편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말한다. 다투는 말이 있고 짜증내는 말이 있다. 습관적으로 많은 말을 하고, 싫증나게 반복해서 잔소리를 한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한다. 민감하고 예민해서 무슨 말이든 말꼬리나 트집을 잡는다. 대화하는 자리에서 혼자 침묵을 지켜서 부자유스럽고 불안감을 준다. 세상의 흥미와 관심으로 세속적 재산과 물건을 자랑하고, 인간적 애정과 자기애를 과시하고, 자기 지식, 자기중심, 자기 뜻을 장황하게 말한다.

긍정적 말들이 있다. 긍정적인 혀를 잘 훈련하고 단련되고 절제된 말이다. 분위기를 환하게 하는 쾌활한 말이다. 다정하고 솔직한 말이다. 충고와 교정을 받아들여려고 평온하고 겸손하게 응답하는 말이 있다. 선한 말은 분위기를 밝게 하고 활기를 준다.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드러내고 개방과 경청과 순응을 드러내는 겸손한 말이다. 낙담할 때, 위로의 말이 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 시작하게 한다. 분위기와 상황에 알맞은 말은 깊은 공감과 신뢰를 드러낸다.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이 있다. 영적이고 복음적인 가치와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의식하며 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향하게 한다.

좋고 긍정적인 느낌의 말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용기를 주면서 희망적으로 화합과 조화롭게 하는 말이다. 즉 **사랑의 말, 기쁨의 말, 평화의 말, 인내의 말, 호의의 말, 선의의 말, 성실한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이다.**(갈라 5,22-24 참조) 이러한 말은 내적 평화와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누어 준다.

마음과 영적인 수련의 글

글은 자신의 관심과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 다양한 내면과 지향을 드러낸다. 글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을 드러낸다.

부정적인 글은 어떤 편견, 선입견, 왜곡된 심리 등을 드러낸다. 글에서 신심의 편향된 상태나 개인적 체험에서 오는 영적 교만과 영적 허영심이 드러난다.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높은 단계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글도 있다.

좋은 글은 순수한 내면과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어떤 사건과 일, 혹은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진리와 가치와 의미를 이야기한다. 사건이나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것들을 표현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고 추구하는 영적인 가르침이나 말씀들이 무엇인지 기쁘게 드러낸다. 자신이 어떤 가르침에서 무엇을 본받고 어떤 삶을 실천하고 싶은지 고백한다. 그리고 무엇을 열망하고 추구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려고 하는지 희망을 쓴다. 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드러낸다. 시련과 절망과 낙담과 무관심과 회피의 세상 삶이지만, 신앙과 기도로 새롭게 세상 구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과 사명을 드러낸다.

삶을 성찰하는 좋은 글쓰기가 있다. 먼

저 하루 중 어느 순간에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느꼈는가? 하루 중 어느 순간에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느끼지 못했는가?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일까 글쓰기를 한다.

또 하루 중 언제 나는 가장 작은 주님께 필요로 하는 무엇을(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따뜻이 맞아들였고, 입을 것을), 어떤 작은 것을 베풀어 드렸는가? 하루 중 언제 나는 가장 작은 주님께 필요로 하는 무엇을, 어떤 작은 것도 전혀 드리지 않았는가? (마태 25,31-46 참조) 이렇게 이웃 사랑도 성찰해 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글쓰기 해 본다.

악(惡)으로 치달는 판단

문제가 되는 판단력이 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 너무 단순하고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아니면 혼자 너무 고집스럽고 하나에만 마음을 쏟아서, 다른 여지나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다.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이 있다. 불편하고 불쾌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충고나 조언을 해주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과 감정으로 자신의 일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변을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제이다. 즉 상황과 사람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놓치고, 나쁘고 바람직하지 않은, 악한 그런 분위기에 가담한다. 같이 양갈음하려고 하고, 같이 악담을 하고, 같이

비난을 하고, 미움과 분열에 빠진다.

선(善)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판단

선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판단은 다른 사람과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또 그의 원의나 필요나 뜻을 도와주려고 행동한다.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그의 뜻을 살피고 그를 위한다. 그래서 배려하고 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신을 이끌어 간다.

또 내 의견과 뜻도 있고 말하고 싶지만,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며, 그의 뜻을 잘 읽고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과 서로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조언이나 정보,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찾고 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에 마음을 열고, 하느님 면전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말한 대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 포기하고 내버릴 것을 찾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이탈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소화 데레사는 말씀하신다. “저는 절대로 두려움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행복하게 되는 방법과 고난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낼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불쾌하게 해 드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격려해 주시니까요.” (자서전 8장)

결론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말, 그리고 좋은 글과 합당한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가꾸며 영성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지혜 속에 꿰뚫어져야 한다.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더욱 친밀하게 살아야 한다.*

마귀와 성수(聖水)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어느 한 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한 여인과 불륜(不倫)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한 것은,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에게 그런 사실을 매년 신뢰심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에게서 받은 목걸이를 성녀에게 드렸습니다. 성녀께서는 그 목걸이를 강물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그분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성녀께서는 그분이 받는 고통을 대신 받게 해 주십시오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유혹하던 마귀(악마, 사탄)가 성녀를 몹시 구타했습니다. 견딜 수 없이 아프셔서, 수녀님들에게 성수(聖水)를 가져와서 뿌려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성수를 뿌려드렸더니, 마귀가 방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성녀께서는 성수 그릇을 달라고 하여 마귀가 있는 그 방 모퉁이에 가서 성수를 뿌리셨더니, 그 마귀가 밖으로 도망치고, 그 방안에는 유황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옥 냄새였습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그냥 물과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축성된 물(성수)이 그토록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녀께서는 성수가 마귀를 쫓는 데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축성하셔서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것이 성수(聖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께서는 자신의 따님들인 수녀님들에게도 성수를 자주 뿌려 주셨고, 성녀 자신도 늘 성수를 뿌리시고 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지, 악마

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순(順)히 들은 천사들은 상(賞)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천신(天神)이 되었고, 교만으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천사들은 벌(罰)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들은 악하고 질투심이 강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1 베드 5, 8-9)

마귀는 거짓 현세적 행복으로 인간을 속이면서 죄를 짓도록 유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을 떠나 은총 지위를 잃게 되는 대죄(살인, 간음, 배교)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겐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태 26, 41)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려야 하는가 하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으므로 인간보다 힘이 더 센(시편 8, 5 참조)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느님의 힘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피조물인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태 6, 13)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정성스럽게 바치고,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성수를 자주,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방 구석구석에 뿌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7)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제3장 맨발 가르멜의 재확장(17~20세기)

1. 식민지 시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맨발 가르멜의 확장



데레시타 데 아우마다 수녀
(성녀 데레사의 조카, 신대륙 출신 첫 번째 가르멜 수녀)

라틴 아메리카는 맨발 가르멜에 있어 최고의 텃밭이었다. 사실, 성녀 데레사는 젊은 시절부터 이곳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성녀의 여러 형제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신대륙으로 향했으며 성녀가 잘 아는 여러 사제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녀의 기도와 편지에는 언제나 그곳이 늘 담겨 있었다. 성녀와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염두에 둘 것은, 성녀의 작품들이 출간된 지 얼마 후, 이 작품들은 라틴 아메리카까지 퍼져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읽혔으며, 이는 맨발 가르멜 수녀원들이 창립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성녀의 자필 편지들 중에서 몇 통은 라틴 아메리카까지 도달했으며, 남미의 가르멜 수녀원에서는 이를 고이 간직하며 성녀의 정신을 기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이처럼 성녀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그곳에는 성녀가 생존하던 당시 이미 성녀의 친형제 가운데 7명, 4명의 사촌형제, 여러 조카들을 비롯해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제들이 살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던 형제 중에는 금의환향했던 형제도 있었다. 돈 로렌소가 그 경우로, 그는 자신의 세 자녀(로렌소, 프란치스코, 데레시타)와 함께 많은 재산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돈 로렌소의 자녀 가운데 막내인 데레시타는 세비야 가르멜에 입회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는 첫 번째 맨발 가르멜 수녀가 되기도 했다. 데레시타는 아버지인 돈 로렌소가 신대륙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낳은 딸이기 때문이다.

성녀 데레사가 사도직을 펼치고 싶은 원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음은 이미 그의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녀는 이를 자신의 딸 수녀들, 제자 수녀들에게 전해주었다. 사도직에 대한 열망은 성녀의 카리스마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남성 중심의 스페인 사회, 스페인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꿈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성녀는 봉쇄를 넘어서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천 개의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이 꿈을 이루고자 했다. 바로 이러한 열망으로부터 맨발 가르멜이 지닌 ‘선교’ 카리스마가 기원한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싶다는 성녀의 열망은 1566년 가을 성 요셉

수녀원에서 프란치스코회 소속 말도나도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커졌다. 성녀는 오랫동안 신대륙(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다 귀국한 그로부터 사제들의 부족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을 모른 채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분 말씀이 신대륙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종교에 대해 배우지 못한 탓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더 많은 고행을 권하는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렇거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한다고 생각하니, 견잡을 수 없는 슬픔에 하염없는 눈물을 쏟으며, 은둔소에 들어가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창 1,7).

이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몇 년 전 회보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으며,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제1권』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그 작품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 마디로, 맨발 가르멜은 관상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기원은 선교를 열망했던 성녀 데레사의 강렬한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로 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성녀는 당시 여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이 유리천장을 ‘남자 맨발 가르멜 회원들’을 통해 실현했던 것이다. 그래서, 만일 맨발 가르멜에 ‘선교’ 정신이 웬 말인가 하면서 선교를 맨발 가르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배제하려 든다면, 이는 성녀 데레사의 정신에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며, 맨발 가르멜의 정신을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싶다. 실상, 오늘날 맨발 가르멜이 전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각국의 지역 교회에 뿌리를 내려 교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펼치는 것은 바로 이 ‘선교’ 정신에 기인한다. 성녀는 임종하기 전에 남자 맨발 가르멜 첫 그룹이 신대륙 선교를 향해 출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을 현실화시킨 당사자는 맨발 가르멜의 초대 관구장인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였다. 이 첫 그룹을 조직해서 보낸 당사자도 그였으며, 훗날 교황청에 전 세계 선교 지역을 담당할 부서로 포교성(현 인류복음화성)을 둘 것과 선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대학에 대한 설립을 건의한 당사자 역시 그였다. 이는 훗날 로마의 그 유명한 우르바눔 대학 설립의 발단이 되었다.

2. 멕시코에서 남자 맨발 가르멜

1522년 5월 9일 교황 아드리아노 6세는 칙서 「Omnimoda」를 반포했다. 이는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이자 스페인 왕국의 국왕인 카알 5세(카를로스 1세)에게 보내는 것으로, 교황은 이 칙서를 통해, 만일 주교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탁발 수도회 회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길 원한다면, 황제가 이를 허락해 주도록 요청한 것이다.¹⁾ 당시 여기서 언급된 탁발 수도회는 4개로 가르멜(원 가르멜을 말함) 역시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스페인 왕국에서 초기에 보낸 선교사 그룹에는 가르멜 회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참 후, 이 선교사 그룹에 참여하려 했을 때는 이미 다른 수도회들이 선점한 상태라 참여할 수 없었다. 1535년에 선포된 국왕 의안서는, 엄률이 아닌 수도회에 속하는 수사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고자 할 경우, 국왕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수도회 중에는 원 가르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원 가르멜 회원들은 카알 5세나 그의 아들인 펠리페 2세로부터 모두

1) 참조. Francisco Hernáez, J., *Colección de bulas y breves y otros documentos relativos a la Iglesia de América y Filipinas*, Bruselas, 1895, I, 384. 이는 다음 작품에서 인용되었다: Antonio Unzueta, *La Orden del Carmen en la Evangelización del Perú*, t.I, Ed. El Carmen, Vitoria, 1992, p.11.

신대륙에서의 선교를 승인받을 수 없었다.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신대륙에서의 선교를 요청한 원 가르멜 총장에게, 만일 그것을 원한다면, 이를 추진하려는 스페인의 여러 관구들을 개혁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만일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 관구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고 한다.

한편, 성녀 데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1585년,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는 첫 번째 맨발 가르멜 선교 그룹을 멕시코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신대륙을 향한 선교 그룹에 대한 파견과 그곳에서 여러 수도원들에 대한 창립은 당시 관구 참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해 서명되었다. 신대륙 선교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대륙 식민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간 식민청은 원 가르멜 측에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라시안 신부는 식민청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면서 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로 원 가르멜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 식민청은 그 회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걸 원치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16세기 중반까지 신대륙 선교를 위해 스페인 국왕에 의해 선정된 수도회는 다음과 같은 4개 수도회 밖에 없었다: 아우구스티노회,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메르세데스회. 이 수도회들은 신대륙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선교에서 큰 성과를 올림으로써 국왕으로부터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국왕은 1566년 예수회원들에게도 신대륙 선교를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이런 독점적 지위는 깨지기 시작했다. 반면, 원 가르멜에 대한 신대륙 선교 금지는 당시까

지 계속되었으며, 이는 심지어 1585년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국왕으로부터 신대륙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는 1586년 11월 10일 작성된 국왕 의안서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왕인 펠리페 2세는 선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원주민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본인이 신대륙으로 파견한 수도자들은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메르세데스회, 예수회 소속 수사들이다. (국왕은 여기서 최근 파견하기 시작한 맨발 가르멜회 수사들을 깜빡하고 누락했다) 과인은 허락 없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있는 가르멜회와 삼위일체회의 수사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²⁾

펠리페 2세는 다른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부터는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아니라면, 이 수도회(원 가르멜)의 수도자 가운데, 비록 내 문서를 갖고 있다고 말해도, 그 누구도 신대륙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라.”³⁾ 왜 당시 스페인 국왕은 원 가르멜에 대한 선교 금지 정책을 유지한 데 반해, 후발 주자였던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는 전폭적으로 이를 허용했을까? 맨발 가르멜 회원들과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1)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에 따르면, 당국에서 멕시코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신대륙 선교를 위한 청원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신대륙에 진출한 스페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영토를 발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에

2) Archivo de Indias, *Indiferentes*, 2869, t.II de frailes, folio 80v-81r.

3) 다음 책에서 인용됨: Balbino Velasco, O. Carm. *El P. Antonio Vázquez de Espinosa, su estancia, su obra, su indigenismo*, *Missionalia Hispánica* 15 (1958), 169-217.

따라 지속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총원되어야 했다. 맨발 가르멜 측에서 선교에 대한 허락을 청한 시점이 이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2)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정신과 삶의 방식 그리고 당시 스페인 전역에 퍼진 그들에 대한 명성이 영향을 미쳤다.

3) 펠리페 2세가 맨발 가르멜 회원들을 향해 지냈던 호의와 보호, 그리고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 펠리페 2세는 맨발 가르멜과 원 가르멜 간의 싸움에서 맨발 가르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맨발 가르멜이 원 가르멜로부터 독립 관구를 갖추고 더 나아가 독립 수도회로 설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1582년 맨발 가르멜 회원들을 아프리카의 콩고로 파견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선교를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한 공식적인 왕의 파견 문서는 1585년 5월 13일 바르셀로나에서 서명되었다. 『멕시코 가르멜의 숨은 보물』(*Tesoro Escondido del Carmelo Mejicano*)이란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 고무되고 신대륙 선교를 위해 선교사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펠리페 2세는 맨발 가르멜 수도자들에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보게 되었다. 이에 국왕께서는 당시 맨발 가르멜의 관구장인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와 존경하올 우리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새로운 스페인(신대륙)에 수도원을 창립하도록 요청하면서, 이는 우리 주님을 위한 봉사로서,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선교를 위해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왕께서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⁴⁾

당시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어떤 정신으로 신대륙 선교에 나섰는지, 우리는 이를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가 파견되는 수사들에게 전한 지침서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파견되면서 받은 증명서에는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수칙들이 쓰여 있다:

1) 무엇보다도 그들은 순수하고 초자연적인 지향을 간직해야 한다.

2) 비록 이들에게는 수도회의 전례(예루살렘 전례)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지만, 선교 지역에서는 로마 성무일도를 지참해서 기도를 바칠 것이다.

3) 사제 회원들은 각자 작은 성경과 비오 5세 교리서를 지참할 것이다. 그리고 평수사들은 『영적 기도서』(*Oratorio espiritual*)라 불린 소책자를 지참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정통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4) 또한 파견되는 모든 수사들은 만나게 될 영혼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근거들을 숙지해야 한다.

5) 수도복과 음식을 비롯해 수도회 회헌이 명하는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영혼들의 회심을 위한 일에 전력하는 가운데, 가게 되는 장소와 때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지킬 것이다.

6) 여기에 더해, 멕시코로 떠나는 선교 수사들은 멕시코어 문법책을 지참할 것이다.

맨발 가르멜의 1대 관구장인 예로니모 그라시안 신부가 보여준 이런 모습은 초기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선교에 적극 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선교 지역에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한 목적은 영혼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회헌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도록 배려했다.

(다음 호에 계속)

4) *Tesoro Escondido*, pp. 17-18.

* 자서전 연구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30)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1. 순수 영성주의의 오류

본 장의 제목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1) 관상가들은 “자신의 영을 스스로 송고한 일에 들어 올리지 않아야 한다.” 2) 그리스도의 인성은 “최고의 관상을 위한 수단이다.” 사실, 복잡한 사안들이 다음의 문제에 혼재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형체적인 것으로부터 영(espiritu, 靈)을 멀리 떨어지게 하면서 이 영을 들어 올리는” 오류이다. 이는 분명한 오류이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인성은 영적 진보, 심지어 신비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녀가 창안한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성녀는 당시 영성 서적과 영적 스승들 사이에 (이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 퍼진 오류와 논쟁을 했다. 이는 과거 한때 성녀를 사로잡았던 오류로, 이는 성녀의 영성 생활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성녀는 이 주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를 거슬러 논쟁했다.

문제가 된 오류는 ‘영성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성녀에 따르면, 이는 기도하는 이(또는 단순한 그리스도인)가 영성 생활의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신성(神性)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으로부터 영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도하는 당사자는 형체적인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사상에 따르면,

영적 진보를 위해 기도의 동기로써의 예수의 인성을 한편에 놔둬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을 모든 피조물 위에 들어 올려야 하며, “자신은 제한되어 있지만” 무한한 신성의 대양(大洋) 안에 잠겨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녀 테레사가 이 교설을 잘 요약했든 아니든, 성녀가 현시점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음과 같은 중심 주제였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그분의 역사적-복음적 정세, 그분의 수난, 그분의 몸 등이 성녀의 관심사였다. 이런 주제들은 신비가의 기도와 연관될까? 기도하는 신비가가 “영이 날아갑니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의 예수, 성찬례의 예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를 한편에 놔둬야만 가능한 것일까?

성녀가 이 장에서 언급한 책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성녀가 살던 동시대의 작가로 베르나베 데 팔마(Bernabé de Palma)의 저서일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영의 길』(Via Spiritus) 또는 『영혼의 영적 완성』(La perfección espiritual del ánima, 1541년 살라망카에서 출판, 이 작품은 16세기에 여러 판본을 거듭 출간했다)이다. 여기서 베르나베가 가르친 것은 어떻게 지성을 이해할 것인가, “순수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하느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고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미 베르나베가 가르친 바와 같이, “길이는 영원함이며, 넓이는 애

덕이고, 높이는 권능이고 깊이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에페소서 3,18-19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할 것은, 이 장을 쓸 당시, 성녀 데레사는 더 이상 베르나베의 책을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5~6년 전인 1559년에 그의 작품은 발데스 대주교의 「금서목록」에 포함되어 종교재판소에 의해 압류되었기 때문이다)

성녀 데레사에 따르면, 이 이론의 가르침은 성령 강림 이전의 또 다른 복음 텍스트와 연계되어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로써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성령강림을 알리며 하신 말씀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요한 16,7)”

성녀 데레사는 이 영성적인 가르침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구별했다. 우선, 신비적인 초자연의 영역을 향한 진입을 부드럽게 촉발하기 위해 영(靈)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성녀가 한사코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녀는 그것을 무모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육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금하는 태도였다. 이 역시 성녀가 고요의 기도 또는 신비적인 기도의 초기 단계에 들어선 이후 잠시 시도했던 오류였다. 이제 성녀는 이 시점에서 혼신을 다해 이런 잘못에 대해 슬퍼했다: “나

의 주님, 보다 큰 보화를 위해 당신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어찌 단 한 시간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이 모든 보화가 어디에서 제게 오겠습니까?” (4절)

이제 성녀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거슬러서, 자신의 실패에 맞서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떠나 그 신성한 육체를 우리의 비참함 또는 피조물의 모든 것과 동일시하는 건, 저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1절).

2. 근본적인 동기

마치 이런 그리스도론적인 사실에 대한 이런 평가 절하로 인해 추궁당하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성녀는 전체 영적 여정 내내 예수님의 인성(人性)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성녀는 이 과정에서 신학자들이 하듯이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았다. 그리고 자신이 찾은 근거들을 두 가지 근본적인 명제로 집약해서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아니 거의 본능적으로 성녀의 마음에서 가장 강렬한 동기가 자연스레 솟아올랐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다. 성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인 근거보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다. 성녀는 영적 여정에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수위성을 경험했다. 이는 이중적인 차원, 즉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부정적인 형태와 관련해서: 성녀는 이러저러한 영성 서적들의 매력에 매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배제했을 당시에 마치 허공을 걷거나 기댈 곳이 없는 듯이 지냈으며, 사랑에 진보하지 못한 채 영성 생활에서 피로를 느끼곤 했다. 그분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영혼의 모든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

한다: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느라 주님께 서 함께 동반하신다는 걸 결코 느끼지 못했습니다” (5절).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6절). 주님의 거룩한 인성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성녀는 결코 신비체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녀는 그분의 인성을 통해 얼마 안 있어 그런 체험에 도달하게 되며, 좀 더 후반부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체험은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 성녀는 곁에 계신 지극히 좋으신 벗과 함께 빛을 발하게 된다. 성녀는 이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증언했다. 성녀의 주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를 모으는 것으로 충분하지 싶다:

-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5절).

- “우리는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6절).

- “하느님을 흡족하게 해 드리고 큰 은혜를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은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당신 마음에 드시는⁵⁾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인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6절).

- “하느님께서서는 제 영혼을 이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11절).

- “저는 당신을 제 바로 곁에서 뵈며 모든 보화도 보았습니다” (6절).

-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좋은 벗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 보며, 인간으로서 약함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10절).

5) 참조. 마태 3, 17.

-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벗이십니다” (6절).

- “고통의 길 맨 앞에 서서 나아가시는 좋으신 대장님, 이처럼 헌신적인 벗과 함께라면 사람은 무엇이든 참아나갈 수 있습니다” (6절).

다시 말해,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은 어떠한 신학적 근거들보다 먼저 드러나고 있다. 물론, 성녀는 이러한 신학적 근거들에도 호소했다. 성녀는 이에 대해 자신이 선호한 독자인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에게 이 점을 힘주어 말했다: “그러므로 공경하올 신부님,⁶⁾ 비록 신부님께서 관상의 정상에 계시더라도 결코 다른 길을 원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7절).

성녀는 자신이 집요하게 보이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성녀는 그 점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러므로 신부님,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잘 아는 분을 만나실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⁷⁾” (13절).

만일 이에 병행하는 『영혼의 성』의 병

6)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를 말한다. 스페인어 원전에 보면 성녀는 여기서 ‘세뇨르’(señor)라는 호칭을 붙였다. 이는 당시 귀족들에게 붙이는 존칭으로 한국어로 번역되기 어려운 말이라 생략했다. 성녀는 이 호칭을 자신의 작품 여러 곳에서 사용한 했다.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에게 이 호칭을 쓴 것은 그가 오로페사(Oropesa) 백작의 아들이라는 귀족 가문에 속하기 때문이다.

7) 성녀는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를 가르치고 있다. 툴레도의 가르시아 신부는 성녀가 이 글을 쓰던 1565년에 이 영적 단계를 거치고 있었다. 그래서 성녀가 이런 조언을 한 것이다. 이는 본장의 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녀 자신의 이런 체험이 많은 영혼들의 여정에 빛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성녀는 특히 자신을 도와준 그래서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빛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 했다.

행구를 함께 보게 되면, 이런 성녀의 의도는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성녀는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오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시는 어떠한 행복도 - 설사 굴러온다 해도 -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행복을 내리시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6궁 7,15).

3. 두 가지 그리스도론적 근거

성녀 데레사는 이제 체험으로부터 소위 “신학적 근거” 로 넘어갔다: “두 가지 이유가 제 생각의 근거가 될 듯합니다” (5절). 이 두 가지 근거들은 영적인 그리스도론과 관련된 작은 에세이를 구성한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성녀는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호소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첫째, 그것은 미묘하고도 해가 되는 겸손의 부족을 내포한다.
- 둘째,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지 천사들이 아니다...

여기서 성녀가 말하는 첫 번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이유는 겸손이 약간 부족한 것이었는데, 너무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5절). 성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생을 갖은 고행과 기도를 하고 별의별 박해를 다 참아 견뎌다 해도, 주님께서 성 요한과 함께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⁸⁾ 지극히 복된

8) 참조. 요한 19, 25-26: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한 분으로 야고보의

자, 최대의 보상을 받은 자로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저같이 교만하고 가련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형제이며 예수께서 가장 아끼신 제자였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성녀 데레사가 특별한 신심을 가졌던 성인들의 목록에 포함되는 분이다. 하지만 성녀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분에 대해 그리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위의 본문에서 언급되듯이, 성녀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계신 사도 요한의 모습을 좋아했다고 한다(자 22, 5). 또한 요한복음은 성녀가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이자 성녀의 영성에 가장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준 복음이기도 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요한복음의 구절이 구체적으로 성녀에게 영향을 미쳤다: 요한 14, 2(“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1궁 1, 1), 삼위일체의 내주에 대해 말하는 요한 14, 23(“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7궁 1, 6-7), 요한 14, 6(“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궁 7, 6), 요한 14, 6(“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6궁 7, 6), 요한 14, 9(“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6궁 7, 6), 요한 20, 19(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를 전하는 말씀: 5궁 1, 12; 2궁 1, 9), 요한 17, 20(“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7궁 2, 7), 요한 17, 22(“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5궁 3, 7), 요한 13, 16(“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보고 36, 2), 요한 11, 42(라자로의 죽음을 대면하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 받은 깊은 인상: 외침 10, 2).

또한 성녀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선호했고 작품에서 많이 사용한 성경의 상징적 인물들을 끌어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청하는 이야기(요한 4, 15; 자 30, 19; 완.바 19, 2; 6궁 11, 5), 영원한 생명의 물이 주어짐(요한 7, 37; 외침 9, 1; 완.바 19, 15), 십자가 아래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요한 19, 25; 완.바 26, 8), 태생 소경의 이미지(요한 19장; 1궁 1, 3), 연못가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풍병자의 이미지(요한 5, 5; 1궁 1, 8),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토마 사도의 태도(요한 11, 16; 3궁 1, 2), 진리에 대한 빌라도의 질문(요한 18, 36; 6궁 10, 5), 또한 성녀는 「저는 당신의 것, 당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Vuestra soy, para Vos naci)라는 시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쉬고 있는 사도 요한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 (8)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행복했던 첫 번째 주간들

방문회 수녀원에 입회한 지 나흘 후인 1887년 7월 20일에, 레오니는 데레사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어린 동생을 기쁘게 해 줄 생각으로 레오니는 데레사에게 자기 수방이 수녀원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 남자 수도원의 높이 솟은 뽕족탑들과 성 스테파노 성당, 정복자 윌리엄의 기부금으로 건축한 11세기의 경이로운 건축물이 내려다보인다고 말해주었다. 레오니는 데레사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레오니는 또한 열다섯 살이 될 때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고 싶어 하는 데레사의 열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데레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을 통해 레오니의 다정함, 단순함,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랑하는 데레사, 난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난 애정으로 둘러싸여 있지... 이런 상황은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 같아! 하느님께선 나에게 정말 친절하셨어. 왜냐하면 내 손을 잡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가 믿기에 바로 여기가 그분께서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 그곳이야. 사랑하는 작은 자매여, 날 위해 기도해줘. 내가 행여 잘못 생각하지 않게끔 기도해줘.

난 널 자주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나 많이 바라는 은총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단다. 마음 편히 지내렴, 사랑하는 데레사.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니까.

우리 수방은 안마당을 향해 있어. 그래서 난 주님 수난 주일에 만들어 둔 예수님 수난의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볼 수 있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대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릴 위해 얼마나 많이 고통받으셨는지 생각할 때, 가장 쓰라린 고통도 참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단다. 난 또한 성 스테파노(성당)의 쌍둥이 뽕족 탑도 바라볼 수 있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 성당에 현존하시듯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있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듯이, 난 정말 행복해. 내 행복을 부러워하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그 행복만이 유일하게 바로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랑하는 작은 자매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안부 전해 드리렴.

데레사를 더더욱 사랑하고 있는 언니

로부터.

레오니

청원자 (레오니)의 여러 희망

1887년 11월 초에 마르탱씨와 셸린, 데레사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최근에 아버지와 데레사의 방문을 받았던 레오니는 그들에게 출발 두 주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마리 언니가 수녀원에 입회한 지도 어느덧 일 년이나 되었네요. 언니가 떠날 당시 아버지와 동생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전 8일 전에 글라라 봉쇄 수녀원에 입회했었으니까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전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분께선 사랑하는 방문회 수녀원으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그 봉쇄 수녀원을) 떠나게끔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전 정말 행복하답니다. 이따금씩 제 마음에 상처 주는 가시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그러한 가시들은 장미꽃들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전 조심하기 때문에 (그 장미꽃들을) 밟아버리곤 합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성녀가 된다고 한다면, 할 일이 정말 많겠네요. 하지만 조금씩, 하느님 은총으로, 전 (성녀 되는 것에) 가까워지겠지요.

아버지와 동생들을 만난 이후로, 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용기 있게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를 바라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작은 동생 (데레사), 너도 알다시피 너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

로 너 정말 어릴지라도 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소망들 중 하나를 너와 나누고 싶단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합일에 대한 갈망이지. 우린 오직 그분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지. 피조물에서가 아니라. 그런 피조물은 우리에게 오직 고통과 슬픔만 가져다줄 수 있을 뿐이야.

우리 마음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진짜로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지. 죽을 운명을 지닌 것들에다가 너무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이 점에 대해 난 내 경험으로 알고 있단다. 지금까지 난 형편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사랑하는 작은 동생, 하느님께선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끌리게끔 하셨지 -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소서- 네 마음이 어리석은 집착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알 수 있기 전에 말이야.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은 온통 새로움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 거야. 난 너로 인해 정말 행복하단다.

난 널 위해 하루 종일 기도했단다. 특히 오늘 아침 영성체 시간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하는 모든 것이지. 왜냐하면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나에겐 나의 형편없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내일은 마가렛 메어리 복녀 축일이란다.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날 기적적으로 치유해주셨지. 그 복녀는 내가 이곳 방문회에서 찾은 행복과 무관한 분이 아니란다. 날 위해 그 복녀께 전구해주렴. 필요하다면, 복녀께서 내가 거룩한 방문회 수녀가 되게 하시는 두 번째 기적을 전구해주시도록 기도해줘.

1887년 10월 말에 데레사는 레오니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했다. (그 답장에서 데레사는) 로마에로의 여행 준비를 설명하면서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했던 것이다. “언니가 편지에서 마가렛 페어리 복녀에게 거룩한 방문회 수녀가 되게 해달라는 전구를 부탁했었지. 난 (그러한 전구를) 하루도 놓친 적이 없어.”

두 번째 좌절

활동적인 성향의 레오니가 마침내 “사랑하는 방문 수녀회”에서 안식처를 찾을까? 1887년 11월에 적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폴린은 확신하지 못한 채 걱정스러워했다. “레오닌 더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 애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야 레오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작아지게 되니까요.”

“가엾은 레오니.” 마르탱 부인이 언급했듯이 말이다. 수도 생활에 대한 레오니의 두 번째 시도는 6개월 동안만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1888년 1월 6일에 르 뷔소네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마르탱씨는 한결 새로워진 다정함으로 자기 딸을 집에 맞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실망스러워하는 레오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레오니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데레사는 (그런) 아버지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레오니 언니가 방문회 수녀원을 떠났을 때, 아버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딸에게 성소를 보내주시라는 기도에 답을 안 해주셨다고 해서 절대로 하느님을 비난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정말로, 아버진 기뻐하면서 언니를 만나러 가셨지요.”

레오니는 리지외에서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 임종하는 이들을 방문하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가르멜 수녀원에 있는 마리와 폴린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마리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에, 레오니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사랑하는 언니, 언니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여기 지상에서 언니가 얼마나 많이 기뻐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언넌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언넌 예수 성심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언니는 곧 그렇게 되겠지.

온 마음을 다해서 언니를 사랑하는 언니의 가엾은 작은 동생,

레오니

분명한 사실은 맘 편히 수도생활을 하고 있던 언니들에 대해 레오니는 어떤 질투심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이 작고 변변치 못하다는 통찰,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느님 두 손에 내어 맡기는 방향으로 이끌게끔 하는 그런 통찰이 더욱더 분명하게 커지고 있었다. 레오니는 자기보다 열 살이나 어린 데레사에게 프랑스어 수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겸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고 하겠다.

데레사가 가르멜 수녀원에 합류하다

1888년 4월 9일, 데레사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두 언니 레오니와 셸린, 그리고 르 뷔소네를 영원히 떠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다. 출발하기 전 저녁 때, 마르탱 가족들은 데레사와 마지막 식사를 했다. 후에 데레사는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잊혀

지기 바랐을 때, 저에게 입맞춤과 다정한 말들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희생으로 마주해야 했던 것이지요. 몇 달 전에 방문회 수녀원으로부터 되돌아온 사랑하는 레오니 언니는 저를 껴안고 쓰다듬으면서 입맞춤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 가르멜 수녀원 경당에서 레오니와 가족들은 미사에 참여했는데, 그들을 위해 차려진 그 미사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미사 후에 그들은 수녀원 문 앞에서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데레사는 가족 모두를 포옹하고서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축복을 청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데레사 곁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분명 레오니의 마음속에는 어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섞였을 것이다! 그녀는 수도생활을 시작하려는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 그녀는 막내 여동생이 르 뷔소네에서 경험했던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에 레오니는, 마치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수녀원을 떠나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생활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분명 레오니는 나약하기에 그러한 길이 요구하는 희생을 참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괴로워했을 것이다. 심지어 성녀가 되고자 하는 기쁨을 분명히 표명한 이후에서조차 그랬던 것이다.

마르탱씨의 질병

마르탱씨는 이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을 몇 차례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1888년 6월 23일에는 그에게 훨씬 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났다. 기억상실증의 영향으로 인해, 그가 어느 누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리지외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레오니와 셀린은, 마리와 폴린, 데레사가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워 갈피를 못 잡았다.

나흘이 지나서야 그들은 가엾은 아버지가 보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르 아브르에서 써 보낸 것으로서 돈을 청하는 메모 형식의 소식이었다. 게렝 외삼촌과 외삼촌 처조카와 함께 셀린은 곧바로 르 아브르로 떠났다. 그들은 마르탱씨를 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찾아내고서는 그날 오후에 리지외로 모시고 왔다.

같은 날 이른 시각에, 르 뷔소네 집 건물 바로 옆 오두막에 화재가 발생했다. 결국 그 집 건물 지붕으로까지 불이 번졌지만, 소방관들이 가까스로 그 건물을 (불길로부터) 건져냈다. 셀린을 기다리면서 하녀하고만 남아있었던 레오니는 다치기보다는 훨씬 더 놀랐다. 공황 상태가 되어 그녀는 집을 떠났으며, 위험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야 귀가했다.

마르탱씨의 건강은 나아졌으며, 그와 셀린과 레오니는 두 주간 동안 파리에서 지냈는데, 오퇴유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 머물렀다. 레오니는 수도(파리)를 돌아다니면서 교통체증과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인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레오니는 수도생활에 한층 더 매력을 느

겼으며, 방문회에 이끌렸다. 방문회는 1610년 6월 6일에 제네바의 주교였던 프란치스코 드 살과 그를 보조했던 잔 드 샬탈이 안시에서 창립했을 때 명명했던 것처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의 작은 자매들의 수녀회이다. 1888년 10월에 셀린은 데레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레오니는 오로지 방문회에 대해서만 생각한단다. 내가 하는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레오니는 셀린이 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바로 마르탱 씨와 함께 레오니와 셀린이 르 아브르를 방문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셀린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던 피송 신부와 작별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피송 신부는 선교사로서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한 여정 중에 마르탱 씨에게 또 다른 발작이 일어났다. 그 예수회 선교사는 그가 “원로”라고 일컬었던,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이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23쪽에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있는 이들과, 성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찬양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느님 곁을 떠나버린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녀 소화 데레사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과 남녀 수도자들, 교리교사들의 양성과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후원하고 일하는 교황청 전교기구를 위해서도 우리의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소화 데레사 성녀는 기도로써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동반하며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분처럼 진정으로 선교사다운 마음에서 솟아오른 기도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의 주님이요 다정하신 예수님과, 동정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이름으로 당신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이 원고는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교 *

<사도들 중의 사도>가 되고 싶었던 성녀 소화 데레사의 선교 영성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벌써 햇수로는 3년째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하면서 온 세상을 휘젓고 있는 무서운 역병인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에 따라 종교적 집회는 물론이고 친지들의 경조사를 위한 작은 모임까지 제약을 받는 이 엄혹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입국한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저는 갓 시작된 우리의 선교 공동체가 있는 대만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때만 되면 언제라도 금방 나갈 수 있는 공항에서 가까운 인천 수도원에서 대기하면서, 비록 외국의 현지에서 직접적인 선교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가르멜 회보에 선교에 대해서 무언가를 써내야 할 차례가 와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다가, 마침 <누리집> 한구석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침 10월 1일은 그분의 축일이면서 시월 한 달은 우리 교회에서 전교의 달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때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라고 정식으로 불리지만 우리에게서 소화 데레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성녀의 선교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전 세계 선교의 수호성인 중의 한 분이신 성녀 소화 데레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했던 소화 데레사 성녀의 심장의 박동을 우리 함께 느껴봅시다. 이미 백여 년 전에 교황 비오 11세는 성 바오로 사도 이후,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이며 용기 있고 혁신적인 동양의 위대한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를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하였습니다.(경신성사성 교령, 1927년 12월 14일)

이러한 예언자적인 행위로서 비오 11세 교황은 선교사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인 관상과 활동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사실상, 실제 선교사는 항상 관상 중에 활동하며, 활동 중에 관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화 데레사 성녀는 비록 한평생을 봉쇄 담장 안에 사셨던 가르멜 수녀였지만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성녀는 열다섯 살에 입회한 가르멜 수녀원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그분의 정신은 수녀원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성녀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 두 분 성인은 아주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함께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되었는데, 두 분의 공통성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화 데레사 성녀를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한 교황 비오 11세가 강조한 성녀

의 두 가지 생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불타는 사랑이 끊임없이 불타올랐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녀의 짧은 생애 동안 그분께 닦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많은 고통들을 사랑으로 감내하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봉헌했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 자신이 말했듯이 “저는 온 세상을 다니고 싶습니다. …… 저는 가장 먼 섬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온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의 하느님께 그들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 어머니이신 교회의 마음속에서 저는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학자이며, 사도이고, 군인이면서 순교자까지 되고 싶었던 성녀의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받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였고, 그 삶의 여정은 이러한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대양으로 맹렬하게 흐르는 급류는 지나가는 길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갑니다. 오, 나의 예수님. 당신 사랑의 끝없는 바닷속으로 자신을 던진 영혼은 거기 소유된 모든 보물에 이끌려갑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듯이 제가 가진 보물은 오직 저의 영혼과 함께 당신을 기쁘게 하는 영혼들뿐입니다. ……” 이것은 소화 데레사 성녀의 선교 의식을 반영하고, 그분의 전 생애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였을 때, 성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선교사로서 자신의 성소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혼들을 주시려 하였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사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가르멜인은 그 성소의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제가 활동하는 선교사가 아니기에 저는 사랑과 고행으로써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은총이 절실한 인류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사랑의 희생으로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화해할 것이며, 사랑에 개종하고 구원될 것입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좁다란 가르멜 수녀원 울타리 안에서 살았지만, 복음화되어야 할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지평을 한없이 넓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데레사 성녀의 축일은 전 세계에서 봉헌된 사람들의 선교 영성에 바쳤습니다. 모든 남녀 수도자들, 특히 관상 수도회에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들의 소명이 선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실 봉헌생활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러하였듯이, 모든 소명과 은사의 근원인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봉헌생활」, 72항)

소화 데레사 성녀는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성소를 채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구원을 확신한 그분은 기도에서 자신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기도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매 순간 임금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왕비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모든 인간을 위한, 특히 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녀의 사랑과 자비는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성녀는 모든 이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세상 종말까지 끊임없이 간구하기 위해 죽은 뒤에도 선교사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성녀의 마지막 병환 중에 그녀는 “저는 영원한 휴식처로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좋으신 분이 사랑받게 하려는 저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의 낙원은 세상 종말까지는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존재하는 한 휴식을 바라지 않으며, 결코 저 혼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는 이러한 그의 열정적인 선교 정신으로 세계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성녀는 선교가 하느님의 사업이며 본질적으로 기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가르멜의 성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기도와 희생의 목적이 선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써 사도들 중의 사도가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리스도의 희생에 온전히 자신을 일치시킨 성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피의 값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분 편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 후손들이 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협력자들과의 동참은 본질적으로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성소는 다 익은 밀밭에 추수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의 눈을 낮추고 들판을 보아라. 추수하러 가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더 고상합니다. ‘너의 눈을 들고 보아라.’ 하신 예수님

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천국에 얼마나 많은 빈 공간이 있는지 보아라. 그곳을 채우기 위해 어서 일어나라. 너희는 산에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모세들이다. 나에게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내주겠다.’ 가르멜인으로서 우리의 선교는 수천수만의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적 일꾼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선교사에는 두 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먼 나라로 가는 이들이 있고, 소화 데레사 성녀처럼 기도와 희생으로써 선교사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녀는 우리에게 선교란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성녀는 수도원의 장상이 맺어주신 먼 나라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영적인 형제인 벨리에르 신부와 라울랜드 신부를 동반하면서, 한편으로 자신과 함께 사는 나라 프랑스 안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던 프란지니에게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양산하였고, 많은 불쌍한 죄인들과 부닥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와 희생으로써 회개로 이끌어야 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고 하셨으니 우리는 수확할 땅의 주인님께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많은 복음 봉사자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느님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지역의 본당 신자들과, 사제와 남녀 수도자와 선교사들과 함께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모든 선교사 단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20쪽으로)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시와 해설

내 눈들 그대 뵈과저 Veante mis ojos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 | | |
|--|--|
| <p>1. 내 눈들 그대 뵈과저
달고 좋은 예수여
내 눈들 그대 뵈옵고
이제 당장 죽과저</p> | <p>3. 내 예수님 없이는
좋은 것도 싫어라
이리 된 마음에겐
모든 것이 시름일 뿐
그대 사랑 버림만이
내 기댈 자리라오</p> |
| <p>2. 장미와 자스민은
불 사람들 보라고
내 만일 그대 뵈오면
즈믄 꽃밭 보게 되리
세라핀의 꽃송이
예수 나자레노여
내 눈들 그대 뵈옵고
이제 당장 죽과저</p> | <p>4. 내 눈들 그대 뵈과저
달고 좋은 예수여
내 눈들 그대 뵈옵고
이제 당장 죽과저</p> |

< 해 설 >

테레사 성녀가 강생 가르멜 수녀원에 사시면서 좀 더 완전한 수도생활을 하기 위해 1562년에 개혁된 맨발 가르멜의 첫 수녀원인 성요셉 수도원을 창립하여 몇 명의 수녀들이 살게 한 후, 몇 년 뒤에 당시 총장님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1567년에 메디나 델 캄포 수녀원을 두 번째로 창립하고, 1568년에 말라곤과 바야돌리도 두 수녀원과 두루엘로에 최초의 남자 수도원을 창립하고, 1569년에 톨레도 수녀원과 빠스트라나에 수녀원과 수도원을 창립하고, 1570년에 살라망카 수녀원을 창립하는 등, 몇 년 동안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 수녀원을 창립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시던 중에, 어느 날 들르게 된 살라망카 수녀원에서 수녀들과 함께하는 공동 휴식시간에 한 수녀가 언젠가 성녀가 써 준 이 시에다 곡을 붙여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였는데, 성녀가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순간 첫 구절이 끝나기 전에 즉시 탈흔에 빠졌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져 온다. 바로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Veante mis ojos, dulce Jesus bueno...

베안떼 미스 오후스, 둘체 헤수스 부에노....

(* 진하게 쓴 부분은 강하고 길게 발음함)

즉흥적으로 쓴 성녀의 시를 현대어로 알아듣기 쉽게 풀어헤치면 대체로 이런 내용이다.

1절. 내 두 눈으로 그대를 보고 싶어요, / 감미롭고 좋으신 예수님 // 이 내 두 눈으로
님을 뵈온 뒤에 / 그대로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2절. 장미나 자스민 같은 꽃들일랑 / 볼 사람들은 보라지요 // 내 만일 그대를 뵈게
된다면 / 그보다 천 배나 많은 꽃밭을 보게 될 거예요 // 세라핌 천사들의 꽃인 / 나자
렛 사람 예수님 / 내 두 눈으로님을 뵈온 뒤에 / 그대로 그냥 죽어도 좋겠어요.

3절. 나의 예수님 없이는 / 아무리 좋다는 것도 싫증이 나네요 // 이렇게 된 마음으
로는 / 세상만사가 시들하고 // 내가 의지할 데라고는 / 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뿐이니
까요.

4절. 내 눈으로님을 뵈고 싶어요 / 달고 좋으신 예수님 // 내 두 눈으로 그대를 뵈
온 뒤에 / 그대로 당장 죽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시와 노래의 가락은 성녀가 귀천한 후에도 수녀들을 통해 대대로 전해져서 스페인의 오래된 몇몇 수녀원에서는 오늘날까지 불리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날 탈흔에서 깨어나신 성녀가 곧바로 지은 시가 이미 전에 소개한 Muero porque no muero <뭏 죽어 죽겠음을>이다.*



가르멜로 74-56길

“꿈” “꼭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이 있나요?”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어릴 때, 친구들과 서로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저는 박 박사라고 했습니다. 성이 “박” 가이고 “박사” 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박 박사” 하면 어감도 재미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공업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참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셨죠. 수업 때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특히 당신 대학 다닐 때 전선을 가지고 전기장판을 직접 만든 얘기며 또 기술적 원리를 칠판에 일목요연하게 딱딱 설명하실 때면 저는 그분이 맥가이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으로 이후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신호가 깜빡깜빡 나타났습니다. 제가 물리와 수학을 못 한다는 것이었죠. 이과에서는 물리와 수학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한 번은 고교 2년 중간고사 때, 100점 만점에 수학 20점 맞았습니다. ‘그때 맥가이버 되는 꿈 접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후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할 무렵에는 전자•전기공학과가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그 과에 진학했습니다. 아울러 집안의 장손으로서 집안을 생각하는 철든 생각도 그 선택에 한몫을 했구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공과목이 거의 대부분 수학과 물리와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달달 외워서 간신히 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했습니다. 전기공학과 출신이지만, 저는 지금도 형광등 갈아 끼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감전될까 봐 무섭습니다.

“너 자신이 진짜로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게 뭐니?” 제가 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질문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저는 사회에서 썩 괜찮다고 하는 직업에 눈을 돌렸고 거기다 나를 끼워 맞췄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진정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5월의 어느 날, 저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저만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는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비록 지금도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또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도 자주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진심으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심지어 빵을 고를 때도 가끔씩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돈을 생각하지 말고 니가 진짜로 먹고 싶은 것을 골라봐!”

아래 사진은 아스팔트 위에 핀 호박입니다. 아스팔트의 갈라진 틈에 있는 아주 적은 흙에서 호박 줄기와 잎이 생겨나고 이윽고 호박꽃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와우~ ^^ 저 호박 잎과 꽃에서 강한 생명력을 봅니다. 우리도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꿈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도 그러한 꿈을 이루는 데 지지와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또 팔을 걷어붙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성소문의 : 010 2140 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마산 공동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마산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리포터 인사드립니다.

호수 같은 남쪽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마산 가르멜 수도원 안에서 각종 모임과 양성을 하고 있는 축복받은 재속회를 소개하려 합니다.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모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이면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입구부터 분홍빛 벚꽃 터널이 수놓아지고, 수도원 곳곳의 작은 정원에는 고개 숙인 노란 수선화가 회원들을 반깁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 즈음 마산 수도원이 생겼을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 오래된 수국이 만개해 회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빨간 수도원 벽돌 건물과 자연이 하나가 됩니다.

올해로 창립 31주년!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이곳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산 공동체의 시작을 함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 회원 '기억을 소환하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가르멜 남자 수도원과 함께 한 공간을 쓰는 행운 속에 마산재속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89년 하반기에 지금의 삼성병원 가는 그 중간쯤에 아육실리움 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교리교사 또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육센터인데 그곳에 강의를 오신 정대식 신부님을 통해 가르멜 재속회란 단체를 알게 된 몇 분의 여 교우들이 진동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 마산 재속회의 태동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진동 가르멜 수도원은 다 지어졌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피정의 집은 공사 중이었지요. 피정의 집은 재속회가 설립되고 난 후에 축성식을 했는데 당시 월모임에 다니던 우리는 피정의 집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일꾼들을 보고 다른 공사장에 비해 여기는 젊은 일꾼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수사님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12월은 준비 기간이었고 마산 재속회의 정식 출범은 1990년 1월

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입회한 1기 회원들의 연령대는 규칙상 60세까지였으나 특별회원으로 60세를 훨씬 넘는 회원도 있었고, 지금 70세인 제가 막내로 평균 40대 중·후반의 나이로 인원은 모두 14명 정도였지요. 인원도 적고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회장단의 열정으로 부산 재속회로 성무일도를 배우러 갔다 와서 회원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를 양성해 줄 선배가 없는 상황이어서 월모임과 구역모임으로만 재속회 생활을 했고 월모임에 가면 신부님들의 강의가 전부였는데 양성과 영적 공부가 부족했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과 사모 성녀 데레사의 정신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순수했던 신심만은 참으로 깊었던 시절이었어요. 기억에 깊이 남아 있는 것은 안셀모 신부님의 모친이신 안나 자매님이 대구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가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도 나네요.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자가용이 흔치 않던 때라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 회원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지금의 수도권 가는 길이 아닌 공원묘지가 있는 구불구불한 구 도로를 시외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진동읍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거나 40분 정도 걸어서 수도원을 다녔지요. 흔들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어느 봄날 산기슭에 만개한 진달래를 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열정이 저마다의 꽃처럼 피었겠지라는 생각도 했지요.

이러한 우리가 애처로웠던지 원장신부님인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박태용 요한 신부님이 수사님 한 분을 시켜서 경남대 앞까지 봉고차를 보내 주셔서 수도권까지 데려오고 마치면 데려다주고 한 시절도 있었지요.

수도원 수사님도 재속회원들도 많지 않

다 보니 봄 야유회 때는 다 함께 무학산 등산을 같이 가서 안셀모 신부님의 기타 연주에 맞추어 합창하며 손수건 돌리기 게임도 했고, 체육공원에서 우리가 부탁드려 한 수사님들의 철봉 매달리기, 턱걸이 시합을 보면서 손뼉 치며 웃던 기억도 납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바라보이는 무인도에 야외행사로 배를 타고 갔던 적도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낙지 한 마리를 잡고서는 좋아라고 함성 지르던 추억도 있습니다.

이젠 수사님들도 우리도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있지만, 그때 함께 했던 신부님과 수사님들의 모습은 아직도 풋풋한 청년의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 초창기 때만 해도 피정의 집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이라 피정객들이 많았고 또 지금처럼 먹거리가 넘치던 시절도 아니어서 겨울 반찬으로 김장김치가 많이 필요하여 엘리야 신부님과 함께 마산역 시장으로 트럭을 타고 가서 김장배추와 양념거리를 사 가지고 와서 김장 준비를 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는 우리도 수도권 식구들도 다 젊어서 일을 겁내지 않았고 열정도 넘치던 시기라 피곤한 줄 모르고 웃고 떠들다 보면 그 많던 김장도 너끈히 해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들의 영적 귀도 조금씩 열리다 보니 가르멜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회원 수도 점점 많아져 갔지요. 비안네 신부님이 원장신부님으로 계실 때 마산 가르멜 재속회는 재속회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듯합니다. 회원 수에 비해 종신서약을 한 회원 수가 많았던 마산 가르멜 재속회를 신부님은 튼튼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개인 면담을 통해 가르멜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종신서약 회원들에게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사랑의 꾸지람을 하셨을 때 순명치 못한 많은 회원들이 가르멜산 하산을 했지요. 그때 회장단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흘러 우리 재속회도 이제는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회원 이야기

남편 직장 관계로 다른 공동체를 전전하다가 이곳 마산으로 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너무도 아름답고 고운 성모님께서 반가이 맞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한 저를 가족처럼 따뜻이 맞아주어 감사했고 회원 수가 적어서 금방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대청소를 할 때에는 회원들이 마치 내 집안 일 하듯이 피정의 집 구석구석을 물로 깨끗이 씻어 내리고, 수도원 소성당 방석 속을 햇볕에 소독하고, 피정의 집 선풍기도 씻고 닦고 말리는 등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르멜 대축일 때는 고성, 부산, 울산 재속회에서도 함께 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점심을 마련해 주어 잔칫집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하면서 고요와 엄숙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피정의 집 언덕 십자가의 길을 돌면서 주님 사랑에 겨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현존을 느끼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곳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야외 월모임을 광주 수도원에서

매년 4월이면 성지, 수도원, 수녀원, 경치 좋은 유명한 곳에서 야외 월모임을 합니다.

광주 가르멜 수도원 방문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수도원 아래 동네를 지나 광주 신학교 앞에 도착하니 수사님들께서 자동차를 준비해 오셔서 연세 드신 분부터 차례로 수도원까지 태워 주셨습니다.

회원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수도원에 도착하여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수도원에서 마련해 주신 점심식사를 맛나게 먹고 한국 가르멜의 초대 신부님이셨던 고 박태용 요한 신부님 묘소에 모여서 연도를 바치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는 몸이 불편하신 박병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었지만, 항상 밝게 웃으시던 신부님의 모습이 아닌 무표정이신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휴식을 한 후 수도원 강의실 앞에서 수사님들과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신나는 댄스도 함께 하면서 공동체의 야외 단합 월모임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섬진강 휴게소 버스 주차장 구석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먹던 컵 쌀국수 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내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작년 연피정 마지막 날에는 피정집 강의실에서 마산수도원 수사님들을 모시고 공동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녀 에디트 슈타인 생애에 대한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십자가의 성 요한 대축일에 수련 수사님들이 준비한 연극을 봅니다. 큰 선물이었지요.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에디트 슈타인 십자가로 축복받은 데레사”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준비하였는데, 1막은 “하느님께로 회심”, 2막은 “아우슈비츠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지속기 양성교재인 “에디트 슈타인 (사랑과 진리의 불길)” 을 7분 단막극 형식으로 양성시간에 보여준 것을 취합하여, 공동체가 2막으로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성녀 에디트 슈타인의 생애를 연극으로 한다는 것은 용기와 모험이 필요한 일이었고, 새로운 시도는 항상 반대 의견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에디트 슈타인 성녀 생애의 여러 면을 장면 장면으로 기억하고, 그 장소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걱정 반 우려 반 속에서 시작된 연극이 드디어 무대에 올려지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관 마련 ‘야훼 이레’

올해 7월 13일,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3일 전 특별히 가르멜산 성모님의 망토 아래 보호를 받는 모든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교육관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하느님만을 찾고 갈망하는 열정으로 가르멜에 모인 회원들이지만 코로나 상황과 집안 사정 등으로 구역모임, 공동체 여러 모임 등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교육관 건립이 절실했습니다. 교육관 기금마련을 위해 모든 회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참기름도 팔고, 콩도 팔고, 떡국도 팔고, 시래기도 팔고... 가족상으로 받은 부의금, 자녀 결혼 축하금도 교육관 기금으로 내고 회원들의 신립금, 회원이 아닌 신자들과 멀리 타 지역 회원들의 도움 등으로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교육관 기금 마련을 하여 마침내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교육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부족했지만 필요한 만큼 교육관 기금이 준비되어, 중

개업을 하고 있는 전 회원이었던 자매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두 곳을 소개받았는데 그 중의 한 곳이 저희들이 원했던 조건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기금 마련 과정은 힘들었지만 찾고 있던 교육관이 너무나 쉽게 나와서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짐에 ‘야훼 이레’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는 사계절의 향기만큼 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 마리아여

모든 이들이 떠난 뒤에 조심스레
작은 마음에 ‘어머니’ 를 담아 봅니다.

바람도 떠나간 조용한 가르멜 동산의
재재거리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를 부르는
기도와 하나가 되어
하늘 건너 사랑을 알리는데
넘쳐 오는 눈물 또한 숨길 수 없어
이 작은 가슴 속에는 물이 흐르고
눈물은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침묵 속에 향기로워
새삼 행복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님!
인정받으려 함에서
칭찬받으려 함에서
자랑하려 함에서 침묵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 (5)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브레슬라우 성 미카엘 성당

성녀가 20살 때부터 수녀원 입회 전까지 20여 년간 살았던 집 앞에서 여러 장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마감하고, 우리는 성녀가 매일 새벽 미사를 봉헌하고 자주 찾아와 기도했다는 미카엘 성당으로 향했다. 걷다가 뒤돌아보니 오후 햇빛에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집은 차량 통행도, 인기척도 없는 도로가변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에디트는 기도하는 것과 영성체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브레슬라우 집에서 지내는 동안 이른 새벽 미사를 하루도 꺾하는 날이 없었다. 에디트는 매일 새벽 성당으로 갈 때는 식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오전 다섯 시 전에 남몰래 살짝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다.” (수자와 카오리, ‘에디트 슈타인’)

집에서 걸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서 깊은 이 성당은 키 큰 나무가 우거진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별 좋은 오후, 성당 주변 나무

그늘 벤치에는 유럽 영화 한 장면의 배경이 연상되는, 허리 구부정한 노인 두 명이 마주 보고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공원 오솔길과 구분 없이 이어지는 성당 마당에서 몇 계단을 올라 암갈색의 장중한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성당 안은 갑자기 서늘한 어둠으로 바깥세상과 비현실적으로 구분이 되었다. 성당은 집을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입구부터 성녀에 대한 많은 기억을 펼쳐 보이고 있다. 성당 입구 오른쪽 판판한 붉은 벽돌 기둥에는 4개 국어로 112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성당의 역사를 안내하는 긴 인쇄물이 붙여져 있다. 성당 내부의 첫인상은 고풍스런 고딕 양식의 장엄함과 높은 천장, 그리고 신비스러운 파란 스테인드글라스가 어우러진 거룩함과 고요였다.

안내문에 따르면 성 미카엘 성당은 1862년에 지금의 벽돌로 지어진 외관을 지니게 되었다. 제일 처음 이 성당은 1189년에, 그보다 반세기 가량 앞선 1120년부터 1125년 사이에 세워졌던 아주 오래된 교구 본당의 담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16세기 루터교 시의회는 거짓 소문을 퍼트려 성당을 파괴시켰고, 같은 세기에 성당은 목조로 재건되었다. 16세기 말, 벽돌 건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신 고딕 양식이다. 이 성당은 브로츠와프(브레슬라우)가 프로이센 령이 된 후 건축된 최초의 대형 가톨릭 사원이라고 한다.

1870년에 일어난 독일 가톨릭 교회를 압박하는 문화 투쟁 Kulturkampf - 가톨릭의 영향이 독일 제국의 통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반가톨릭 입법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당시에는 많은 주교와 추기경이 투옥되었고 수도 단체는 독일에서 추방되었다. 이곳은 이 사건의 국가 주도적 정치 운동에 반대하는 가톨릭 저항의 상징이 된 성당이 기도 하다. 그 당시 이곳 브레슬라우 주교는 퇴위당했다. 이 운동은 결국 1870년대 후반 독일 제국이 반가톨릭 정책을 철회하고 교황 레오 13세와 화해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19세기에는 가톨릭교회 내외의 종교 갈등을 빚음과 동시에 강력한 결속을 이루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성당은 또다시 70프 로가 파괴되었으나 1947년부터 신자들과 살레시오회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최근인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가파른 구리 지붕이 예전 모습으로 복구되었고 2014년에는 교회 내부 제단과 오르간이 새롭게 바뀌었다.

안내문에는 특별히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1922년부터 1933년까지 이 성당을 찾아와 기도했다는 설명과 함께 원편에 성녀에게 헌정된 경당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1922년부터 1933년까지. 1922년 1월 세레 성사에 이어 2월 견진 성사까지 받은 성녀가 집에 들렀을 때부터 1933년 10월 쾰른 가르멜 수녀원 입회까지를 말한다. 개종하자마자 성녀는 고향 브레슬라우를 찾았다.

“어머니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녀의 개종 사실을 안 어머니는 성녀의 그 말을 듣자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유대교를 떠난 성녀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 안내되어 있는 연표에 성녀의 가톨릭에서의 여정과 세계 2차 대전의 광풍이 함께 얽혀 있음이 새삼스럽다.

설명서 밑에는 이 성당이 지니고 있는

12세기 중엽의 오래된 성물 사진과 16세기 말경의 미카엘 성당을 묘사한 그림, 1950년 성당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 전 전쟁 중에 파괴된 모습을 찍은 사진, 1868년에 반파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있다.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몸체만으로도 몇 번의 변화를 겪어낸 이 성당이 2차 대전 직후 폴란드로 편입되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도 역사적이다.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격랑을 겪어내 온 이 성당이 키 큰 나무, 푸른 잎들이 일렁이는 별 좋은 5월 하루, 한 세월의 인장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간 곳은 성당 입구 원편 경당이다. 에디트 슈타인에게 헌정되었다는 안내문의 그 경당이다. 창살 너머 경당 안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책이 펼쳐진 느낌이 나는 작고 단단한 단이 있다. 단 위에는 흰 천을 깔고 성광을 올려 두었는데 성광 안에는 성녀가 지녔던 작은 십자가가 성체처럼 보관되어 있다. 대리석 단 표면에는

'AVE CRUX, SPES UNICA (하레하나이다, 십자가 유일한 희망이여)

9 VIII 1942 (1942년 8월 9일)'

이라고 새겨 있다.





“... 하례하나이다. 십자가 유일한 희망이여! ... 십자가는 지상으로부터 천상에 이르는 길이다.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면서 껴안는 사람을 십자가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세상은 화염에 싸여 있다. 이 화염을 끄고 싶은 마음이 네 안에서 일어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열린 심장으로 부터 구세주의 피가 솟아오른다. 이 피가 지옥의 화염을 끈다. 너의 서원을 충실히 채움으로써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 서부와 동부 전선에서 상처 입은 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너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며 상처들을 싸매줄 수도 없다. 너는 너의 수방 안에 문을 닫고 앉아 있으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너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느냐? 내가 사제여서 그들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고아들과 미망인들의 비탄이 너의 가슴을 쓰리게 하느냐? 네가 위로의 천사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라. 내가 너의 거룩한 서원을 충실히 지켜 신부로서 그분께 결합된다면 너는 그분과 같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너는 의사 간호사, 사제처럼 여기 또는 저기에서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비탄의 상황이 있는 어디에서나 모든 전선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너의 자비에 찬 사랑,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은 너를 모든 곳으로 데려간다. 그 고귀

한 피는 그 모든 곳에 뿌려져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눈은 너를 내려다보며 너에게 묻고 시험하신다. 너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 다시 한번 서원할 것이냐? 그분께 뭐라고 답하려느냐?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시나이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1939년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에 서원 갱신을 위해 쓴 글,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 지음 ‘십자가 신비’ 에서 참조)

고딕 건물의 단정함 안에 화려하면서 정돈된 스테인드글라스가 성당을 감싸고 제대 뒤로는 미카엘 대천사 그림이 있다. 그림 뒤 스테인드글라스에도 미카엘 대천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유럽의 성당 거의 모든 곳에 미카엘 대천사상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성당이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된 이유와 함께 이 거룩한 하느님의 집에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든든한 사자로의 상징을 굳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당은 바닥 마감부터 고풍스런 의자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봉헌된 하느님의 집이다. 성당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제각각 다른 역사를 지니고 공존하고 있다. 12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19세기, 그리고 지금, 내외적으로 허물어짐과 보수 재건을 거쳐 온 사이 성물들의 모습도 제 시간의 한쪽씩을 차지한 채 영원처럼 머물러 있다. 지상의 이 아름다움은 천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 자신의 품위를 지켜 낸 이 성당은 그 어디쯤에 자신의 아름다움의 자리를 매김하고 성녀에 대한 좋은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일까?

1922년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실은 어머니의 심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브레슬라우로 돌아와 성녀는 반년 동안 머물렀다.

1933년 7월 중순에 에디트는 윈스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해 10월 쾰른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8월 15일에 고향 브레슬라우로 돌아와 두 달 동안 머무른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못했습니다. …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앉아있는 그 뒤에 서서 백발이 된 어머니의 머리를 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 나는 떠나야 할 시간이 오기까지 계속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쾰른 가르멜에 입회하기 전까지 성녀가 머물렀던 집과 성당을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행보를 위해 발길을 돌렸다.

순례지 첫 미사 봉헌

미카엘 성당을 나와 20분 거리에 있는 ‘세례자 성 요한 성당’에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곳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제대 종양을 향해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형식의 성당이였다. 신부님은 시종일관 등을 돌리고 미사 예식을 진행했다. 단지 복음 낭독 때만 신자 석을 향했다.

순례 첫 미사 강론

“작년 이맘때 순례 계획을 세우고 ‘공순모’ (공부하며 순례를 준비하는 모임)라는 이름을 짓기도 전에 저는 우리의 순례는 3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순례를 준비하고 공부하며 나

눔 하는 1년이고, 두 번째는 순례지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순례이며, 마지막 세 번째 순례는 집에 돌아와서 그 순례의 기억과 배움과 감동을 내 일상 안으로 끌어 들여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세 성녀에 대해 알아가고, 그 앎을 서로 나눔 하기로 했을 때 저는 세 성녀에 대한 앎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두 번째 순례 중 이튿날 첫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 성녀에 얽힌 여러 곳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여기 모인 20여 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겠지요.

길다면 긴 18일의 일정 안에서, 서로 부족한 점은 감싸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공유한 서로에게 이 시간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합시다.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가 부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님께 전구합시다.”



(다음 호에 계속)

* 회원의 글 *

잃어버린 화관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팬더믹으로 한동안 닫혀있던 데스칸소 가든(Descanso Gardens 休)을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가든 입구 인적 없는 오솔길의 한적함이 좋아 묵주기도를 바치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것이 후두두 통 통 얼굴을 스칩니다. ‘아, 우박이다!’ 어린 시절 이후 비 구경도 쉽지 않은 사막지대에서 우박을 만나다니 경이였습니다. 푸른 배춧잎에 떨어지던 우박이 신기하기만 하던 그날처럼 흠내음이 정답습니다. 바람에 쓸려 동그랗게 굴러다니는 하얀 구슬을 따라다녔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마구 불어왔지만 추운 줄도 모르고 동영상 찍었습니다.

차들이 서둘러 떠난 텅 빈 주차장에서 우산을 꺼내려 차 트렁크를 여는 순간, 그제야 생각나는 ‘묵주는?’ 오던 길을 되짚어 몇 차례 살살이 살펴봐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묵주는 비디오 영상에 선명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박에 정신이 팔려 딸아이가 선물한 까만 구슬 안에 보라색 장미꽃이 들어 있는 5단 팔찌 묵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처럼 비도 오시고 호젓하게 거닐려던 정원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쓰라림만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고국 방문이었던 겨울, 홀로 쉬고 싶어 원고 마감과 감기몸살을 핑계 삼아 가족들의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는 언니한테도 비밀이라고 당부했지만, 하루도 안 되어 들통이 났습니다. “이모, 식사하러 가세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질문에 미소만 짓는 요한은 언제 봐도 선한 젊은이입니다. 어차피 들켜버린 비밀이었기에 다음 날 혼자 있을 언니를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면 안 된다고 따뜻한 옷을 사주고, 아는 길인데도 다리를 건너 기어이 성당 앞까지 데려다주고 가던 피붙이의 정, 그제야 전 묵주반지로 기도를 드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머물고 있던 빌라 입구 공사장에 쌓인 흙더미를 보는 순간, 꽃집에서 덤으로 얻어 온 작은 화분 생각이 났습니다. 옷이 담긴 비닐포장지를 꺼내 흙을 조금 담았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묵주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 돌아본 하얀 눈발엔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선물 받은 묵주반지에 얽힌 인연도 끊어버리라고 하시는지, 잃어버린 섭섭함보다는 기도를 많이 바치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순간 도망가는 기억의 부재로 잃어버리고 도둑맞은 소중한 망각(忘却)이 가끔은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여고 시절, 물어 물어 찾아간 성당은 양철로 동그랗게 지어진 군인 막사 같은 공소였습니다. 주일 오후엔 강 건너 오래된 시골 본당에서 <성 요셉 병원> 앰블런스를 타고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방문하시고, 마룻바닥에 앉아 미사 참례를 했습니다. 드디어 읍내인 공소에 새 성전이 지어지고, 대전교구 첫 번째 서품을 받으신 원로 신부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본당에서 처음으로 탄생하는 첫 영세자들에게 교황님이 축성하신 로사리오를 선물하

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받은 무지갯빛이 아롱지던 오팔 목주를 선물 받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매괴회 회원이 되어 축성 받은 그 목주를 소중히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종로 음악학원으로 전자오르간을 배우러 다니던 어느 날, 수강료를 넣어 둔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버스에서 자꾸 쳐다보던 옆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소매치기당하는 장면을 봤지만 말을 해줄 수 없었나 봅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동안 매괴회 회원이란 사실도 잊고 살아온 세월이었음을. 아마도 받은 선물 중에 목주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를 축하하며 대모님이 주신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던 야광 목주, 성지순례 기념으로 또는 축일이라고 주신 목주 선물, 이곳을 방문하시며 또는 고국을 다녀오시는 신부님 편에 보내주신 로사리오 등... 브라질 교포 사목을 마치시고 귀국길에 들르신 영세 신부님께서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저에게 예수 성심의 성화가 단마다 아름답게 엮어진 로사리오를 선물하셨습니다. 무심한 듯 주머니 속에서 꺼내 주시며 관에 넣어가도 좋다 하신 나무 목주는 천국의 계단으로 인도해 줄 향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선물은 연피정 지도로 오신 신부님께서 주신 밤색 가르멜 팔찌 목주입니다. 지난주에는 단독 회원께서 작별 선물로 골라보라며 자매님께서 애용하시던 성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다고 진줏빛 로사리오를 택했습니다. 기원과 다정이 담긴 많은 로사리오 선물처럼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그럼에도 로사리오 장미 꽃다발을 열심히 바치지 못했음을 아프게 반성합니다.

이곳 결혼식 풍습 중에는 십자가를 가운데로 양쪽으로 목주 알을 엮은 큰 로사리

오(Lazo)로 신랑 신부를 두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의 줄을 감싸 하나로 묶는 것처럼, 우리의 전통 혼례인 초례청에서 신랑 각시를 병풍으로 두르며 백년가약을 맺는 예식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딸아이 혼배미사에서 가장 감동이었던 순간은 막 혼인 서약을 한 신랑 신부가 성가대의 아베마리아가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성모님께 꽃 봉헌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장면이었답니다. 온갖 감정이 휘돌며 언제 어디서든 자애로 보호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제가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가 되어 살아보니, 이제야 성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작년엔 멀리서 보내주신 생각지 못한 선물을 전해 받았습니다. 예쁜 브로치와 아름다운 목주 두 개가 있었습니다. 터키석의 목주는 큰딸에게, 전 검정 구슬 목주를 가졌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목주기도를 20단씩 바친다고 좋아하며 때론 피곤해서 즐기도 한답니다. 많이 바치는 것도 좋지만 한 단을 바쳐도 온전하게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기가 목주를 잡아당겨 축 늘어져 속상하다는 소식에, 버리지 말고 새로 꿰어 보자고 가져오라 했지요. 이튿날, “엄마, 아침에 보니 목주가 제자리로 돌아왔어!” 기쁨에 겨워 영상통화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늘어났던 고무줄이 수축할 수도 있지만, 평소 목주알 속으로 넣으려면 힘들던 묶인 매듭까지 어찌 작은 구슬 속으로 감축같이 들어갔는지 우린 성모님의 선물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락 목주의 유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수련장이 우연히 보게

된 어느 수련자 곁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성모송 한 번 바칠 때마다 장미 송이가 한 송이씩 피어났고, 열 송이가 되면 천사는 장미꽃 열 송이마다 백합 한 송이를 꽃아 장미 꽃다발을 엮고 있었던 거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천사는 그 아름다운 화관으로 성모님의 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자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신비로운 정경을 보게 되었단다. 우리가 성모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그 공을 다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단다. 성모님께 바치는 칠락 묵주는 천사와 함께 바치는 상상하고 아름다운 화관을 바치는 기도란다.”

소화의 꽃뿌림으로 시작되는 로사리오 성월인 시월은 침묵 중에 연피정에 참석합니다. 장미 화관을 머리에 쓰는 것은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를 묵상하며, 종신서약자를 위해 화관을 엮습니다. 신자들이 콜로세움에 끌려가 사갓밥이 되던 그리스도교 박해 시절, 순교를 앞둔 신자 머리에 장미꽃 관을 씌웠답니다. 박해를 피해 살아남은 신자들이 순교자 시신을 몰래 거둬 그들이 썼던 장미꽃 관을 한데 모아놓

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바쳤대지요. 화관을 쓰고 성모님의 성의에 망토를 여미어 제대 앞에 무릎 꿇어 서약했던 마음가짐을 다시 새겨봅니다. 일생동안 서약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어머니께 신뢰로 맡겨 드리던.

로사리오를 축성할 때마다 제일 먼저 당신을 위해 묵주 기도를 바쳐 달라시던 로사리오의 도미니코 신부님, 교황님도 주교님도 우리의 가르멜 성인 성녀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은 그 말씀이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도 이젠 ‘기도해 주십시오.’ 청해 봅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화관을 더욱 정성으로 엮어 로사리오의 어머니께 바칩니다. 영혼의 정원에 매괴장미를 심고 가꾸어, 환희의 성스러운 순백의 장미 화관과 고통의 불디붉은 화관을 영광의 찬란한 황금빛 화관 더불어 빛의 신비로운 초록 장미 송이송이 엮어 로사리오 화관을 날마다 봉헌 드리겠나이다.



모여라 백성들이 장미꽃 꺾어
신비의 장미화로 화관 꾸미세
성모님 깊은 사랑 높이 기리며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드리세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무일도 찬미가.

* 회원의 글 *

눈빛 깊어지는...

이정미(아기예수의 헬레나)/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나이 들면서
눈빛 깊어지는 사람
늘어났으면...

작은 일에도 출렁거리며
핏발 세운 어두운 눈빛
살아온 세월 고스란히 담겼거늘

이제는 인생의 가을
어른은 그냥 되지 않는 것이니
남들을 겨냥했던 손가락 내리고
나약해서 죄로 기운 이웃 안에서
내 모습도 보며
촉은히 여기며

우주 만물과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눈빛을
깊어지게 할 것이니

혹여 그 눈빛
나를 닮았다 하시며
함께 가는 우리들 다 함께
천국 호적에 이름 올려 주신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 없겠네.



* 회원의 글 *

以患爲利(이환위리) 위기를 기회로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코로나 19가 세상을 블랙홀처럼 삼킨 지 오래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80%나 줄었지만 사랑은 줄지 않았다. 결식아동에게 밥 먹이고 도와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가슴... 키가 큰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체중이 무거운 선수를 투입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방패로 무장하는 우리들은 기쁨이고 희망이다. 슬럼프나 우울감, 권태기는 늘 예고 없이 닥친다. 불안과 혼란 속의 내게 누가 손을 내밀 것인가. 그건 바로 나다.

以患爲利(이환위리), 轉禍爲福(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절호의 찬스!!!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영혼의 화가, 빛의 화가, 해바라기의 화가이다. 네덜란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떠돌면서 책방 점원과 선교사 등을 지내며 많은 방황을 했으며 내성적이고 고집 센 고흐를 감당할 사람은 없어 보였다. 고흐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 홀로 하는 외로움 안에서 열정적인 그의 삶을 이야기한다. 37년을 사는 동안 9년 남짓 그림을 그려 900여 점의 회화를 남겼다. 글쓰기 역시 좋아했으며 수시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남아있는 것만 800통 가량.

1880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천직임을 깨닫고 노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색채를 즐겨 쓰는 거칠지만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서양화가이다. 그림에도 생전에는 단 1점만 팔렸다는 무명의 화가였다.(지금은 1,00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님) '노란 집'을 만들어 함께 생활한 단 하나의 친구인 고갱마저도 떠나게 되자 신경과민으로 치

료를 받던 그는 자기 귀를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 처량한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 궁핍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다 사후 재평가된 '시대를 앞서 나간 천재 예술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듯 명언을 남긴다. 아마 내 마음도 19C 고흐와 같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나는 무엇일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고 유쾌하지 않은 사람.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째레 말해 바닥 중의 바닥.

그럼 이 모든 얘기가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어쩌면 동생 테오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시간을 함께 보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모른다. 인간관계에 서툴러 상처가 많았던 그. 책을 펼치면서 바로 옆에서 숨을 쉬듯 생생하게 살아나는 소설 속 다른 색깔의 인물들로부터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옹이 진 나무가 마지막까지 홀로 타듯이 명작을 남긴 것이 아닐까.

단테 알리기에리(1265~1321)는 호메로스, 세익스피어, 괴테와 함께 세계 4대 詩聖(시성)으로 이름 한다. 그 자신의 개인적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려는 목적에서 쓴 작품이기

도 하기에 이 시는 진정한 神曲(신곡)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살아가는 길 중간에/ 나는 어느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네./ 끝은길이 사라져 버렸기에.’

이탈리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장편서사시 ‘신곡(神曲·La Divina Commedia)’의 시작이다.

인생의 길을 잃은 한 청년이 지옥, 연옥, 천국을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서사시로 한 여인을 통해 신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작품은 서양문학의 白眉(백미)이다.

가장 몰입도와 흥미가 높은 지옥편이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라는 지옥. 친족을 배반한 자들과 신의 와 조국을 배반한 영혼들이 벌 받는 곳으로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옥의 가장 큰 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받는 것이다.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끊임없이 벌을 받는다. 제발 영혼까지 죽여 달라는 외침이 인상적이다.

단테의 연옥은 연옥 문을 지키는 천사인 카토와 뒤이어 영혼들을 몰고 온 천사를 보며 시작된다. 연옥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생전에 보속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 고행을 하는 것으로 남은 죄를 씻을 기회를 주는 신의 자비인 것이다. ①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영혼은 아예 연옥에 갈 수 없으므로 생전에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②연옥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 못지않고 시간은 아주 느리게 가므로 생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도 ③중요한 교리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의 通交(통교)를 일컫는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천국편에서는 단테가 베아트리체(단테에게는 사랑과 은총의 여신으로 24세에 요절한 실존인물)와 함께 천국을 여행한다. 어린 시절 이웃의 소녀, 길라잡이 베아트리체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듯이 단테에게 설명해준다. 이 책에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나의 여인’이라 칭하고 있다. 천국의 하늘을 오르며 삼위일체의 신비를 맛보게 되니 베아트리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녀의 미소는 불구덩이에 갇힌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단테는 “내가 가면 누가 남고, 내가 남으면 누가 가는가?”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인간의 속세 및 영원한 운명을 심오한 그리스도교적 시각으로 그리며 한 여인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불행했던 자신의 환경에서 不朽(불후)의 명작을 남긴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인 동시에 신을 향한 구원의 기도인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학과 기행으로 얼룩진 음울한 화가, 고독한 예술가로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여인네의 뜨거운 사랑을 갈구하던 그. 그럼에도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가 끝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라 희망하던 그. 사후에 그의 작품들은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지며 세계의 미술 시장을 평정하다시피 한다.

위의 두 명인은 닮은 점이 있었으니 불우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넘어선 불굴의 예술인이었다. 또 하나,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여인을 짝으로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워드 코로나’ 시대의 우리는 어찌면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아픔을 거두고 두 분처럼 지속적인 담금질을 하면서, 우리 사랑의 짝으로 주님을 모신다면, 나의 궁핍함은 당신의 재보로 채워주실 것이다. *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인간극장, 오늘의 주인공은 영적 메마름에 빠진 52세의 지인. 그는 가르멜인이 아니다.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마음이 허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쁜 탓에 기도 생활도 못하고, 성사생활 역시 들쭉날쭉한다며 말이다. 내가 되물었다. “뭔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서 그런가요?”

기도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허한 마음에 성모님과 예수님조차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태라고 했다. 그 말을 이렇게 받았다.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건 아니니까요.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도 종종 하느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듯 영적 메마름을 겪으셨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역시 17년을 분심과 싸우며 영혼의 황무지 상태를 체험하셨다고 해요.” 그녀는 “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안정이 되네요.” 라고 했다. “다만,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의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느낌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보면 어떤 체험들이 생겨날 거고, 믿음도 점차 깊어갈 거예요.”

그녀는 또, 주어진 역할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다, 일이 없어지자 왠지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증과 불안감이 올라온다고 했다. 마른 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가 맺어온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멈춤, 빨간불!’ 상태가 된 거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며 공감해주었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는지 물어봤다. 어릴 적 동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며 제법 활기찬 시절을 보냈단다.

“그때 얘기 좀 해줄래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이야기도 좋고요.” 하며 화제를 과거로 돌렸다. 그녀가 금세 해맑은 표정이 되어, “어릴 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라는 대로 했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면서 순수하고 단순하게요.” 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님과 풍요로운 대화를 나누며 유년시절을 보낸 듯했다. 그런데 시방, 그 많던 추억은 어디로 숨어 버린 거냐고요! 그녀가 말해준 꿈 이야기는 더 생생했다.

“어릴 적, 수돗가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놀았어요. 친구들은 옆에서 놀고 있었고요. 그때만 떠올리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도 좋은 자원이 되어주고 있는 그녀의 꿈에서 문득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장면이 오버랩되었다. 혹시 성경 속 그 장면(요한 4장)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읽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목마르게 하는 세속의 물을 길으러 다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신 거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꺼내 보이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을 내비친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요한4,25-26)

주님께서서는 여인이 자기 삶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바른대로 말한 태도를 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며 당신의 신원의식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주는 존재임을 암시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듣던 지인은 어릴 적 꿈에서 봤다는 수돗가와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무릎에 앉아 사랑받던 자신을 상기하며 환하게 웃었다. 또 잘못된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 순수하고 진솔했던 당신은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었네요. 우리는 늘 초대를 받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용기와 친밀감. 그게 기도이고 대화이며 자아인식이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의 꿈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다며 고맙다고 했다. 무기력해 보이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어느새 생동감이 넘쳤다. 잃었던 보물을 되찾은 것처럼 잊고 있던 영적 자원을 새롭게 발굴해낸 기분인 듯 했다. 월모임 강의 때 들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신부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철저한 자아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곧 겸손이며, 그러면 절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른대로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자아인식을 깊이 한 자유로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우물가의 여인과 수돗가의 아이, 그리고 연상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즐겨 목상하시며, 그 장면을 담은 성화를 아빌라의 강생 수녀원에 입회하실 때, 갖고 들어가신 성녀 데레사.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성녀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는 영원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싱싱한 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가르멜 정원에서 샘솟고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세속의 물을 찾아 나서며, 여전히 메마르고 허했던 그에게 주님은, 어릴 적 꿈속에서 만나 사랑을 나눴던 수돗가의 예수님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관계를 기억하도록 말이다.

(45쪽으로)

* 회원의 글 *

통증의 교감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뎃다)/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조간신문을 읽다가 통증의 교감이라는 제목에 눈길이 멎어 수저를 든 채 끝까지 읽었습니다. 무지막지한 통증이 어떻게 교감이 되느냐는 억지를 부리며 시작한 신문 읽기는 공감으로 완독했습니다.

한 의사가 갑자기 당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늘 환자 곁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통증의 당사자가 되어 병실에 누워있으려니 무력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면회도 금지된 채 주말을 통증으로 보내는 심정은 표현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많이 아프실 거예요. 내일은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시한이 있는 통증이든 아니든 그의 언어는 미더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증의 교감이 아니겠느냐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처음에 쏟아낸 억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나이가 들어가니 몸 구석구석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멀쩡하던 허리가 탈이 나고 무릎이 쭈시고, 그러나 이런 통증은 나잇값이려니 하고 몽그적거리며 살았는데 치아의 탈은 특별했습니다. 무슨 복에 저작에 보탬도 안 된다는 사랑니를 여태 끼고 있었는지 그게 탈이 난 것입니다. 한쪽 치아가 아프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어 치과에 가서 빼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돌연 반대편 사랑니가 육신거리더니 견잡을 수 없이 턱으로 목으로 뻗쳐갔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통증이 얼굴에서 목으로 내려오며 난도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라도 맞으면 숨넘어갈 듯한 고통이 그칠 수도 있을 텐데 그 밤중에 맘 놓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낮 동안 고달프게 살다가 단잠에 든 사람들을 카톡으로 불러 깨울 용기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놀라서 달려온다 한들 내 진통에 손끝 하나 보태줄 게 없는 것입니다. 치통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며 막막해 벽에 걸린 십자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아파 죽겠어, 아무도 없어.” 불을 감싸 쥐고 터지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곁에 있으면 달려와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얼음찜질을 해주고 같이 아파할 텐데...

바로 그때입니다. “나도 아프다” 고통으로 고개를 떨어뜨린 예수님의 목소리가 귓가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이 당신도 아프다고 하시니 벼락이 치는 듯했습니다. 선혈을 흘리며 못 박히신 그분보다 더 아프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지요. 제자들도 자리를 피하고 홀로 고통을 당하시는 이 외로움을 아느냐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통증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마주한 것입니다. 치통이 심하다고 하지만 생살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는 그분의 단말마의 고통을 어찌 비교할까요? 여태까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고 자부한 것이 말짱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교감이라면 적어도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형체가 없어 만져지지도 않고 눈앞에 딱 보이지도 않으니 어디 가야 접촉이 가능할까요? 그날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며 아득하던 예수님의 고통이 사실로 다가온 것이 신비합니다.

다음 날 또 치과에 갔습니다.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의사가 하고 부수적인 것은 보조 간호사가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조 간호사가 하는 치료가 엄청 아팠습니다. 불안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진저리치는 아픔에 인내심이 바닥이 날 지경인데 젖힌 의자에 맡긴 몸으로 무심코 눈을 떠서 지켜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원장님이 옆에서 안쓰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벌렁거리던 가슴이 진정되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무엇인가요? 당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원장님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허황한 곳에서 주님을 찾았다니요. 늘 불안하고 주저하며 세상을 경계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노인네가 혼자 산다고 가까이 또는 멀리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자주 드나들며 안위를 살펴주는 분들이 바로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가끔 미안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옆에도 암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누는 일에는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과 외로움에 기척을 보내는 일인데 대수롭지 않게 보낸 것이 요새 자꾸 짝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문자 한 줄 띄우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당신 옆에 내가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 힘을 주는 일이 바로 교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스크로

차단하고 비대면으로 사는 세상에 교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살이는 소통하고 교감할 때 체온이 살아나고 피가 돕니다.

올 한해를 치과에 다니는 일로 보내는 제게 원장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의 법칙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통증에게도 감사한 나날입니다.*

(43쪽에서)나 역시 돈, 명예, 사람에 매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내 영혼 상태를 바른대로(자아인식) 말씀드리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 밖으로 물을 길으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메마름, 무기력, 조급증, 불안함 등 영혼의 황무지 상태에 빠진 그의 영혼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다. 아니 어릴 적 꿈속, 수돗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 낫겠다. 덕분에 얻은 깨달음, 그도 나도 성녀 데레사도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그 사실을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2021년 12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30장 해설: 주님의 기도라는
고차원적인 청원 앞에서**

이제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기로 하자. “여러 가지 청원”, 성녀는 이를 “고차원적인 청원들”이라 불렀다.

성녀는 “완전하게 구송기도를 드리는 것”은 곧 정신 기도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본 장을 시작했다. 정신 기도는 모든 구송기도의 혼(魂)과 같다.

“나는 「주님의 기도」나 그 외의 구송기도를 읊는 동안이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관상의 경지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25, 1).

「주님의 기도」를 열어젖히는 “아버지”와 “당신께서는 (영혼의) 하늘에 계시옵니다”라는 두 개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

여기서 기도 수행자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훈련해야 할 근본적이고도 분명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읊고 관상하는 것. 관상하기 위해 읊는 것이다.**

성녀는 우리가 지향하는 ‘관심’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여러분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 않으면서 그의 마음에 들게끔 부탁할 수 있을 까를 미리 생각합니다” (1절).

그것은 또 다른 인격체의 현존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와 더불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예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첫 번째 두 개의 청원

성녀는 제목에서부터 그 청원들을 관상 기도라는 열쇠로 이해하고 설명하겠다고 독자들에게 알렸다. “그 구절들을 고요의 기도에 적용하다.” “그 구절들을 설명하기 시작함.”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한 것을** 전하려 합니다. 만일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성찰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절).

「주님의 기도」를 구성하는 첫 번째 두 개의 청원은 독자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하늘나라에서” 하게 되는 기도를 상기시켜 준다. 성녀는 **섬광과도** 같이 빠르게 이 천상 기도의 풍경을 묘사했다.

“나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거기서는 모든 이가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이 하는 일이란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환히 알기 때문에 아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5절).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청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거룩하게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해야** 한다.

2. 관상적인 태도 가운데 읊기

성녀가 보기에 기도를 깊이 드리기에선 뭔가 좀 수단이 **부족한 가난한 이**들은 한 구절 한 구절 기도를 바침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권했다. 입술로 드리는 말이 간직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다 가운데를 항해하는” (6절) 이들에게 주어진 구명 장비와도 같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스승” 이신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동반” 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두 인격 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 인격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동요는 신적 타자(神的他者), 즉 하느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준다. 그분은 “영혼의 능력들을 평화 가운데 두고 우리 영혼을 고요 속에 두는” (6절) 분이시다.

성녀는 관상의 호수 안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혜와 더불어서만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그것은 언제나 둘(하느님과 기도하는 이) 사이의 친교인 기도에 참여한 결과이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상의 샘물은 그저 “몇 모금만 주어질 뿐이다.” 그것도 아주 “잠시뿐!”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이들이 영원히 누리는 관상을 얻게 되리라는 담보(擔保)이자 전조(前兆)이다.

성녀에게 있어서 관상을 향한 진보는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이의 관심 집중, 그리고 인간을 힘차게 들어 올려 주시는 「주님의 기도」 안에 잠재적으로 간직된 무상적이고 사랑 가득한 그분의 통상적인 개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성녀는 체험에서 “사실 나 역시 주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까지는 한 번도 옳게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숨김 없는 나의 고백입니다” (29, 7).

여기서 성녀는 자신에게 강한 충격을 준 어느 벗의 경우를 소개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구송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도무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님의 기도」에 열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수 관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끝맺었다. “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

고 그 사람의 구송기도를 못내 부러워했습니다” (7절).

3. 은밀한 열쇠

이미 성녀는 은밀한 열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즉 기도하는 이가 지향해야 할 관심이 그것이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청하는 것보다 그것을 청하는 대화 상대자인 성부 하느님께 관심을 뒤야 한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의 동반” 을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기도에 함께하시도록 청하면서 그분의 감정과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그 기도의 말마디를 반복해서 발음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관상적으로 읊도록 “배운다 함” 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느끼셨던 감정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분 역시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말을 통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기도문 안에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현존해 계신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제직은 그분의 사제직을 통해 구현된다. 성자로서의 그분이 가지신 감정과 우리의 자녀적인 감정은 그분의 사제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데레사는 이런 은밀한 열쇠를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청원 하나하나에 담았다. 성녀가 “읊기” 에서 “관상” 을 향해 뻗어 있는 다리에 대해 말할 때, 이는 성녀의 교육적 전망이 바로 그곳, 즉 관상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읊고 거기에 포함된 각각의 “청원” 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성녀의 교육적 전망을 살펴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발췌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수상 및 학술상 상임 심사위원 선정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님이 지난 2018년 제22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번역상 수상(『삼위일체론』)에 이어, 여러 학자 신부님들과 번역한 『신학사 1~4권』으로 올해 제25회 한국 가톨릭 학술상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열린 학술상 심사위원 회의는 만장일치로 『신학사 1~4권』을 올해의 최고 학술상인 본상 수상작품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상식은 11월 4일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6층에서 한국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원로 학자들을 비롯해 한국 교회의 여러 인사들을 모시고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9월 9일 열린 학술상 심사위원 회의에서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님이 한국 가톨릭 학술상 상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임 심사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원로 신학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 심사위원은 종신직으로서 4명의 상임위원은 매년 학술상을 수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출간된 모든 학술서적들을 심의, 검토해서 분야별 최종후보작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해에 한해 최종 후보작들을 심사할 4명의 신학자들을 임명해서, 그들과 함께 후보에 오른 최종작들을 심의하고, 분야별로 선정된 작품의 저자, 역자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현재 학술상 상임 심사위원은 이재룡 신부님(한국 성 토마스연구소장), 조광 교수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배영호 신부님(수원가톨릭대 교수), 윤주현 신부님(가르멜 수도회)입니다.

한국 가톨릭 학술상은 지난 1992년 타계하신 한국 평신도 신학의 선구자인 양한모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그 부인이신 홍윤숙 시인님이 후원하고 가톨릭 신문사가 주관해서 199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25회를 맞이합니다. 이 상은 한국 가톨릭 교회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 내

에서 유일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상입니다. 이 상은 본상, 연구상, 번역상으로 나뉘며, 수상작은 올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출간된 학술서적들을 한국 가톨릭 신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신학자 8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번에 올해 최고의 학술작품으로 선정된 본상 작품인 『신학사 1~4권』은 초기 교회 시대부터 20세기 말까지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통해 이룬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광범위한 신학적 성찰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한국 가톨릭 신학계는 이 작품과 더불어 2천 년 동안 발전해온 그리스도교 신학의 통사(通史)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한국 가톨릭 신학계가 지금까지 겪었던 큰 공백을 메꿔주었습니다. 2천 년 신학 역사상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신학자 가운데 한국 교회에 제대로 알려진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신학자의 생애와 학문적 발자취, 주요 작품과 사상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교부시대부터 중세까지 신학의 역사를 주로 교부학과 중세철학을 바탕으로 간접적,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근대, 현대 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사1~4권』은 이러한 공백을 메꿔줌으로써 한국 가톨릭 신학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톨릭출판사의 ‘가톨릭 문화총서’ 가운데 하나로 기획되어 7명의 신학자들이 공역(共譯)한 대작(大作)입니다. 한국어로 출간된 네 권의 분량은 총 4,300페이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학사 1권: 900페이지 (조규만, 박규흠, 유승록, 이건 공역)
- 신학사 2권: 1,000페이지 (이재룡 역)
- 신학사 3권: 1,050페이지 (윤주현 역)
- 신학사 4권: 1,350페이지 (이재룡, 윤주현, 안소근 공역)

이 시리즈는 신학의 백과사전과 같은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통해 신학적인 유전자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일종의 ‘신학적 계몽 지도’가 한국 신학계에 완성되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 전체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가 시대와 민족마다 어떻게 새롭게 성찰되고 발전했는지를 인물별, 학파별, 교도권별로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한 마디로, 신학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제시된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생애, 작품, 주요 사상, 그리고 신학 학파별 계보를 모두 보여줍니다. 이로써 한국 신학계는 광활한 신학의 세계를 향해할 수 있는 ‘향해 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도회 소식

신임 총장, 부총장 선출



신임 총장 Miguel M'arquez Calle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92회 가르멜수도회 총회에서 새로운 총장님과 부총장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총장님은 Miguel M'arquez Calle(미겔 마르케즈 까예, 1965년생) 신부님입니다. 스페인 이베리카 관구 소속이십니다. 아울러 한국 관구가 속한 동아시아 담당 부총장님으로 인도네시아의 Chris surinono (1968년생) 신부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크리스 부총장님은 스페인에서 공부하셨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신데, 유튜브 채널에 강의 및 매일 미사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P. Chris Surinono O.C.D) 앞으로 6년간 가르멜 수도회를 위해 애쓰실 총장님과 부총장님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냐시오 관구장님과 필립보 네리 수사님께서도 총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9월 16일 귀국하셨습니다. 이후 자가격리를 하신 뒤 건강하게 수도원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두 수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가톨릭 학술상 수상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조규만 주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과 함께 번역하신 『신학사 1-4』라는 책으로 가톨릭 학술상 본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4일(목)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있습니다.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강의 주제	강사
10월 8일	성모 신심	서해원 콜베 신부
11월 12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태 13,23-32)	강유수 마리요한 신부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명상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11월은 쉽니다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첫토요 신심 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성시간:

-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날짜	10월 30일
주제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는 영적 어린이의 길
지도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재속회 소식

은경축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5일
- . 회원: 조숙의 예수의 베티
이영주 천주자비의 크레센시아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8일
- . 회원: 구양현 성모의 젤마나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이인숙 예수성심의 골롬바
- . 선종일 : 2021년 8월 11일(향년 85세)
- .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인천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7일
- . 회원: 이종연 천주자비의 아나스타시아
이금자 예수성심의 마리아
김정순 가르멜산의 아가다



완벽함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지는 도덕적 수식어가 아니다.
완벽함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의 결과인 것이다.

-Thomas Merton-